



The 5th Jeju Peace Forum
www.jejupeaceforum.jpi.or.kr



The 5th Jeju Peace Forum

결과보고서

[Shaping New Regional Governance in East Asia:
A Common Vision for Mutual Benefit and Common Prosperity]

2009. 08. 11 ~ 08. 13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The 5th Jeju Peace Forum

[Shaping New Regional Governance in East Asia:
A Common Vision for Mutual Benefit and Common Prosperity]

2009. 08. 11 ~ 08. 13



C O N T E N S
 The 5th Jeju Peace Forum



I 개요	04
1. 개최목적	
2. 행사내용	
3. 회의운영개요	
4. 총평	
5. 언론 보도결과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10
1. 제5회 제주평화포럼 개막	
2. 개막 동시회의: 경제·역사·제주타운홀 회의	
3. 특별전체회의 “안정적 세계통화금융의 모색”	
4. 세계지도자세션 “상생과 공영의 21세기를 향하여”	
5. 전체회의Ⅱ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어디까지 왔나?”	
6. 전체회의Ⅲ “한국의 미래: 신성장동력과 휴먼뉴딜”	
7. 동시회의Ⅱ: 언론, 안보, 경제, 역사를 아우르며	
8.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기조연설 (동아시아 신 다자주의를 위한 안보, 경제, 환경의 3대 축 제시)	
9. 전체회의Ⅳ “세계금융위기, 위험관리, 기업경영: 아시아 태평양의 시각”	
10. 전체회의Ⅴ: 외교관 원탁회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촉진: 선행적 외교의 역할을 탐색하다	
11. 한국의 국제화 교육, 제주 영어 교육도시가 건인한다	
12. 전체회의Ⅵ “국제적 맥락 속의 국가브랜드 추이, 현안 및 실행전략”	
13. 동시회의Ⅲ: 국가브랜드, 지속가능 경영, 동아시아 인간안보, 제주영어교육도시	
14. 동시회의Ⅳ: 핵과 북한의 미래, IT 국가브랜드, 동아시아금융시장과 제주국제금융센터	
15. 제5회 제주평화포럼 성황리 폐막	
III 포럼 후속조치 사항(안)	34
1. 제5회 제주평화포럼 국영문 서적 출판 계획	
2. 세미나 및 국제회의 추진 계획	
별첨	39
1. 조직위원회 조직도	
2. 행사일정표	
3. 세부 회의일정	
4. 국내외 참가자 약력	
5. 주요 행사장면	

I 개요

1. 개최목적

전례 없는 고도성장과 예기치 못했던 IMF 위기가 보여주듯이 아시아는 역동적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이 끝났지만 아시아에서는 아직 안보적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

제주평화포럼은, 이 같은 아시아의 역동성과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창의적 발상에 기초한 국제협력의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와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그 개최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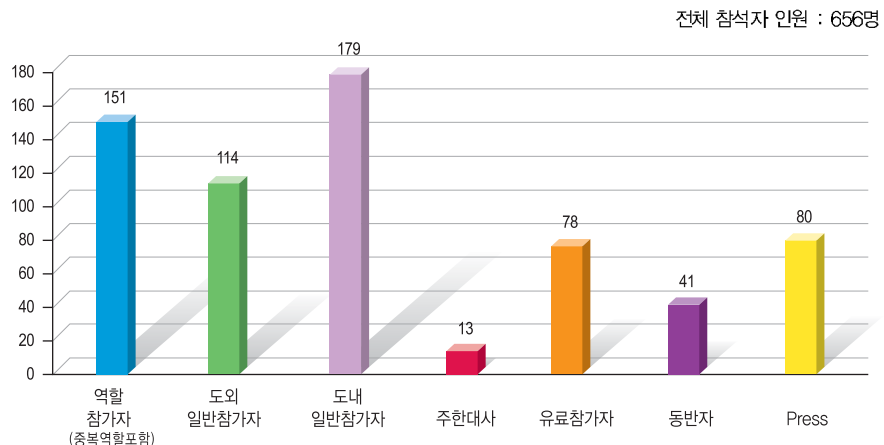
특히 이번 포럼은 세계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동아시아의 안보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협받는 와중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세계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협력과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적방안을 찾는 데 그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2. 행사내용

- 주제: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 일시: 2009년 8월 11일(화) ~ 13일(목)
- 장소: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 후원: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제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

3. 회의운영개요

- 참가자 수:





The 5th Jeju Peace Forum

제5회 제주평화포럼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 회의운영:

개회식(기조연설: 국무총리, UN 사무총장)	2회
특별전체회의	1회
전체회의	6회
동시회의	12회
타운홀 회의	3회

4. 총평

제5회 제주평화포럼이, 2009년 8월 11일 제주 해비치 호텔 & 리조트에서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Shaping New Regional Governance in East Asia: A Common Vision for Mutual Benefit and Common Prosperity) 을 주제로 개최되어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포럼은 특히 국제경제와 동북아안보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급증하는 시점에 열려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창의적인 방안을 찾는 참가자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포럼에는 13개국에서 135명(외국인 78명 포함)에 달하는 세계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안보, 경제, 역사, 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에 관련하여 연설, 발표, 토론의 역할을 맡아 참가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동아시아 신다자주의를 위한 안보, 경제, 환경의 3대 축을 제안하였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상생과 공영 거버넌스’ 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연설을 통하여 제주평화포럼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제주평화포럼의 비전을 재천명하였다. 전직 정상급 인사들로 구성된 세계 지도자 세션에서 존 하워드 전 호주총리와 이흥구 전 국무총리는 동아시아의 상생과 공영을 위한 제안과 고견을 나누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유료참가자들도 대거 참석하였으며, 유료참가자 포함하여 총 500여명이 넘는 역할, 비역할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메웠다.

이번 회의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5월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위협이 증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참가자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의의 범위도 지역과 주제에 있어서 확대되어 제주평화포럼의 국내외적 위상을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먼저 논의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어 4회 제주평화포럼까지는 동북아시아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국제경제체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과 관련하여, 이번 포럼에서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확대된 지역적 범위의 토대 위에 역내 평화와 번영의 방안을 논의했으며, ‘성숙한 세계국가, 글로벌 코리아’ 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의 다양화도 이루어져 1차례의 특별전체회의, 6차례의 전체회의, 12차례의 동시회의를 통하여, 과거에 다루었던 안보문제는 물론 경제, 역사, 문화 등을 망라한 새로운 주제들에 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예컨대, 동아시아 다자안보 및 평화체제 구축 등 기존의 안보 쟁점뿐만 아니라 향후 신성장동력과 휴먼뉴딜 등 한국의 미래에 관한 비전까지 활발하게 논의 되었고,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아시아태평양의 시각과 입장으로 교환했다. 더불어 국제적 맥락에서의 국가 브랜드 제고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제5회 제주평화포럼은 과거의 포럼보다 논의

되는 지역과 주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주평화포럼이 명실상부한 국제적 종합 포럼으로서 자리잡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참가자들은 국제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서, 제주평화포럼이 개최되는 제주도의 정체성 및 국제화교육과 관련된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두 차례의 타운홀 회의도 진행되었다. 타운홀 회의에서는 국제적 시각과 지역적 시각을 종합하여 향후 국제화거점으로서의 제주도가 견지하여야 할 정체성 문제를 논의하였고, 제주도의 발전을 견인할 영어교육 인프라에 관한 인식의 공감대를 구축하였다. 제주평화포럼에서의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외교와 담론의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종합하면 대 5회 제주평화포럼은 과거의 포럼에 비하여 참가자 증가, 지역범위 확대, 주제 다양화 등의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처음으로 유료참가자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차별된다. 특히 유료참가제도는 처음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비 및 교통, 숙박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등록참석자가 100여명을 상회하였다. 이는 제주평화포럼이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처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포럼으로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한태규 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주평화포럼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상생과 공영을 구상하고 주도하는 집단지능(collective intelligence)이 탄생하였다”고 선언하고, 앞으로는 제주평화포럼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 번의 제주평화포럼은 5회 회의보다도 더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며, 더욱 많은 참가자가 참가하여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언론보도결과

■ 세계홍보 차원

(1) Arirang TV(세계 188개국 5,300만 가구가 시청하는 영어방송)

- 8월 11일, 12일, 13일에 총 5차례 보도
 - Arirang News 08. 11. 22:00
 - Arirang Today 08.12 07:00, 11: 30, 14:00
 - Arirang News 08. 13. 22:00
 - Arirang Radio
- 8월 11일, 12일, 13일에 총 3차례 보도(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기조연설 생중계: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태규 제주평화포럼 집행위원장 등 영어인터뷰)

(2) 인터넷 생중계

- 8월 11일 ~ 13일 제주평화포럼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생중계(JF Peace Net 오디언스 등 대상)

■ 전국홍보 차원

1. KBS 1 TV

- 8월 11일, 12일, 13일에 총 4차례 보도

2. MBC TV

- 8월 8일, 10일 뉴스데스크 보도

3. SBS 뉴스

- 8월 10일 뉴스 보도



4. MBN(매일경제 TV)

- 8월 10일, 11일, 12일, 13일에 총 8건 보도

5. 연합뉴스

- 8월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에 총 27건의 기사, 총 10건의 영상뉴스 보도

6. 중앙일보

- 8월 10일, 11일, 13일, 18일에 총 4건의 기사 보도

7. 한겨레

- 8월 9일, 12일 총 2건의 기사 보도

8. 동아일보

- 8월 11일에 총 1건의 기사 보도

9. 조선일보

- 8월, 10일, 14일에 총 2건의 기사 보도

10. 문화일보

- 8월 10일, 20일에 총 2건의 기사 보도

11. 한국일보

- 8월 10일, 13일, 14일에 총 3건의 기사 보도

12. 경향신문

- 8월, 10일, 11일, 17일에 총 3건의 기사 보도

13. 영문판 연합뉴스

- 8월 9일, 10일, 11일, 12일, 13일에 총 17건의 기사 보도

14. Korea Herald

- 8월 11일, 12일, 13일에 총 10건의 기사 보도

15. Korea Times

- 8월 11일, 12일에 총 5건의 기사 보도

16. Joong-ang Daily

- 8월 11일, 12일, 13일, 14일에 총 5건의 기사 보도

17. 매일경제신문

- 8월 9일에 총 1건의 기사 보도

18. 헤럴드경제

- 8월 12일, 13일, 14일에 총 12건의 기사 보도

19. 서울경제신문
 - 8월 13일에 총 1건의 기사 보도
20. 환경비즈니스
 - 8월 31일 총 2건 기사 보도
21. 중앙선데이
 - 8월 2일, 9일 총 2건 보도

■ 제주지역 홍보 차원

1. Airang Radio(제주FM)
 - 7월30일 보도 (한태규 제주평화포럼 집행위원장 인터뷰)
2. 제주 KBS TV
 - 8월 5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에 총 11건의 기사 보도
 - 제주 KBS Radio
 - 8월 7일, 10일 총 2건 보도
3. 제주 MBC TV
 - 8월 10일, 11일, 13일에 총 5건의 기사 보도
 - 8월 14일 '시사진단' 프로그램: 한태규 집행위원장, 문정인 교수, 김재윤 국회의원, 고성준 교수 출연
 - 제주 KBS Radio
 - 8월 4일 총 1건 보도
4. JIBS
 - 8월 10일, 11일, 12일, 13일에 총 10건의 기사 보도
5. 제주 KCTV
 - 8월 4일, 5일, 6일, 10일, 11일, 12일, 13일에 총 22건의 기사 보도
 - 'KCTV 초대석' 프로그램: 문정인 교수 8월 14일 출연해 8월17일 ~ 20일까지 8차례 보도
6. 제주CBS
 - 8월 4일, 13일 총 4건의 기사 보도
7. 제민일보
 - 8월 10일, 12일, 11일, 13일, 14일에 총 28건의 기사 보도
8. 제주일보
 - 8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에 총 20건의 기사 보도
9. 한라일보
 - 8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에 총 8건의 기사 보도



10. 제주타임스

- 8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에 총 10건의 기사 보도

11. 제주의 소리

- 8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에 총 18건의 기사 보도

12. 미디어 제주

- 8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에 총 9건의 기사 보도

13. 이슈 제주

- 8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에 총 11건의 기사 보도

14. 제주뉴스

- 8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에 총 12건의 기사 보도

15. 제주투데이

- 8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에 총 17건의 기사 보도

16. 뉴스제주

- 8월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에 총 29건의 기사 보도

17. 제이티뉴스

- 8월 10일, 11일, 12일, 13일에 총 9건의 기사 보도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1. 제5회 제주평화포럼 개막

제5회 제주평화포럼이 전·현직 관료 및 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과공영의 동아시아 질서: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Shaping New Regional Governance in East Asia: A Common Vision for Mutual Benefit and Common Prosperity)라는 주제하에 8월 11일(화) 제주해비치호텔 & 리조트에서 개막되었다.

금번 포럼은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이라는 기존 범주에서 벗어나 지역적범위를 확대하여 최근 부상하는 아세안 등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신아시아구상과 연관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기반을논의했다.

특별히 12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상생과공영 거버넌스’에 관한 기초연설을 하였고, 13일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동아시아 다자주의’에 관한 기초연설이 있었다. 또한 존 하워드 전 호주총리와 이흥구 전 국무총리가 세계 지도자 세션에서 연설하였고 이외에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동아시아의 상생과공영을 위한 공동비전을 논의하였다.

6차례의 전체회의 및 12차례의 동시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다자안보 및 평화체제 구축 등 기존의안보 쟁점과 향후 신성장동력과 휴먼뉴딜등 한국의미래에 관한 비전을 논의하였고,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시각과 입장을 교환하였다. 더불어 국제적 맥락에서의 국가 브랜드 제고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치, 경제적 쟁점을 아우르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제주도의 정체성 및 국제화 교육과 관련된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타운홀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국제화 거점으로서의 제주도가 갖추어야 할 인프라에 관한 인식의 공감대를 구축하였다.

4차에 걸친 기존의 평화포럼과 달리 금번포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처음으로 참가비 및 교통비, 숙박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유료 참석자가 100여명을 상회하며, 이는 스위스의 다보스포럼과 같이 향후 제주 평화포럼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대표적 포럼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개막 동시회의: 경제·역사·제주타운홀 회의

제5회 제주평화포럼의 첫 회의는 경제, 역사, 제주를 주제로 하여 3개 세션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경제세션은 “금융위기 시대, 세계자동차 산업”을 다루었고, 역사세션 “기억문제와 역사의 정치: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본 동북아역사문제의 성격과 전망” 그리고타운홀 회의 “제주의 정체성에 관한 양대 축: 국제자유도시와 세계 평화의섬, 제주”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 동시회의 (경제): 금융위기 시대, 세계 자동차 산업의 길을 묻다

가톨릭대학교 김기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자동차 산업 관련 세션에서 첫 번째 발표자인 김성철 교수(고려대학교)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구조를 분석하면서 현재의 하청위주 구조는 안정적 자동차 생산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일본의 경우처럼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강점인 IT 산업을 자동차 산업에 접목시키는 등의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The 5th Jeju Peace Forum

제5회 제주평화포럼

「상생과 공평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금융위기 전후의 중국 자동차산업에 관하여 발표한 장웨이잉 교수(베이징대학교)는 최근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부상은 세계 혜택, 보조금지원, 브랜드가치 제고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 정책지원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소형승용차 판매 비율이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음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중국 고유브랜드 자동차산업투자에 진력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자동차산업 발전 전망은 매우 밝다고 분석하였다.

카미야마 쿠니오 교수(일본 죠사이대학교)는 현재 위기 국면인 일본 자동차산업 상황을 분석하며, 최근 경기 불황에 기인한 수출, 내수시장 붕괴 양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전적인 자동차산업발전 전략에서 탈피하여 차세대자동차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임을 밝혔다.

시오지 히로미 교수(일본 교토대학)는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하여 현재의 불경기 속에서 생산-소비의 감소가 예상되나, 조정기를 거쳐 2015년경에는 연 9천만대까지 생산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연동되어 개도국 시장이 향후 자동차산업성장의 주요 엔진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토론자 및 세션 참석자들은 중국의 자동차산업 추이에 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표명하였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거대 다국적 자동차기업의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중국 자동차산업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 동시회의(역사): 역사의 기억을 중립화 시키기 위한 정치의 역할 필요

“기억의 갈등과 역사의 정치”를 주제로 열린 역사관련 동시회의에서 (사회 길버트 로즈만 교수, 프린스턴대학교) 동아시아 협력을 구성하는 정체성의 근저인 역사의 상흔과 기억의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역사에서 발원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도널드 베이커 교수(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는 역사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해당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시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특정한 의도에 기반한 역사해석이 지속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회를 전제로 한 역사해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치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정재호 교수(서울대학교)는 탈냉전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발전은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구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잡아왔다고 분석하며, 최근 중국이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정통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노력 등이 현재 동아시아에서 역사적 불편함을 배태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나, 현재 구도에서는 요원한 상황이라 분석했다.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게이오대학교)는 일본정치의 보수화와 역사인식의 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한일간 긴밀한 협력구도 구축과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소에야 교수는 일본정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보수당론이 힘을 얻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간 동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 질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바오 교수(상하이사범대학교)는 일본의 성장이 동아시아의 분열을 초래한 반면, 중국의 부상은 역사적 인식이나 논쟁을 잠재우는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의 다양성과 분화를 통합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동아시아 각국은 공동의 가치를 확대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토대는 역사적 상흔을 해소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역사의 기억을 중립화하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의 결단과 선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다동시회의 I(제주1): 제주의 정체성을 논의하다: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구체적인 발전전략과 노선에 관한 세션이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의 사회로 열렸다. 본 회의에서 문하영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지문대사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주요 내용을 4+1, 즉 교육, 의료, 관광회의, 청정+첨단과학 등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더불어 '세계평화의 섬' 개념이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이라면, '국제자유도시'는 일종의 구체적 실천수단이므로 양자가 동시에 보완되는 관계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성준 교수(제주대학교)는 "평화의 섬 제주의 내적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가가 주도하여 실질적인 추동력을 얻게 된 독특한 사례임을 강조하였다. 금년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향후 중국의 보아오포럼에 필적할 수 있는 지속적 행사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문하였다.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섬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도민들이 평화의 섬을 일구는 주체라는 의식,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제주가 가진 평화의 이미지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있어서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세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의 개념과 정신이 일단 교육과정에 선명하게 반영이 되어야 하며, 국제자유도시로 진전하기 위한 언어 및 국제화 교육 등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단순히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을 통한 국제화, 세계화의 문제는 한계가 있으며 도민들의 의식 수준에 의미 있는 변화가 도래해야 한다는 점 등이 논의되었고, 이는 리더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연관된다고 보았다.

토론에서 제기된 실제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유엔훈련 연구센터(UNITAR)의 제주 설립 건, 홍콩과 같은 고도의 자치지역화, 김정일 제주도 방문을 통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아이디어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토론이 전개되었다.

본 회의에서 향후 제주의 미래상과 관련된 양대 축으로서의 개념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을 교환함으로써 이를 통해 제주의 구체적 정체성 확보 및 이에 기반한 항구적인 발전방향을 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회의였다.

3. 특별 전체회의 "안정적 세계통화금융의 모색"

제5회 제주평화포럼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역내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고자 '브레튼우즈 체제, G20, 세계통화금융 구조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전체회의를 소집하였다. 사공일(대통령 직속 G20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무역협회 회장)의 사회로 개최된 특별 전체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차원, 아시아 지역차원, 그리고 세계차원에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위기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IMF와 같은 기존의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과 G20나 CMI, AMF와 같은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스콧 칼브(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 본부장)는 세계금융질서의 급변 속에서 글로벌 금융질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G20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주길 주문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영향력과 역할이 과거에 비해 중요해졌고, 아시아 국가들의

보유외환의 증가로 글로벌 자본구조도 다극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안정적 금융시장의 관리를 위해 국가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가 소외되었던 과거의 G7 대신 아시아의 역할이 증대된 G20의 비중이 더 커져야 할 필요가 있다. G20은 앞으로 개별 국가차원에서 미시경제 조율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호무역의 유혹을 견제하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와이 마사히로 연구소장(아시아개발은행)은 기존의 국제통화금융질서를 보완하고 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아시아통화기금(AMF)이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발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와이 소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원인이 지구적 차원의 금융관리체계의 취약성에 있는 만큼, G20 산하에 금융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G20 차원의 금융감독체계의 확립과 선진국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국제금융통화체계를 주도했던 IMF를 보완하여 아시아 국가들도 국제금융통화체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며 국제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출주도 정책에서 내수와 국내 증산층을 중시함으로써 소비시장을 육성해야 하며, FTA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지역차원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금융통화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아시아통화기금이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리 다오쿠이 교수(중국 칭화대학교 경제학과)는 달러본위체제의 불안정성을 대체하기 위한 다수기축통화체제의 구축이나 IMF 내 특별인출권(SDR)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세계의 기축통화로 사용되어 온 달러는 미국경제의 쇠퇴, 적자의 누적뿐만 아니라 유로와 같은 지역통화의 등장으로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가능한 대안은 금본위체제로의 복귀, 다수기축통화체제의 사용, 그리고 IMF 내 특별인출권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금본위체제가 복귀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달러화와 함께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다수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거나 또 회원국의 지분을 근거로 특별인출권을 확대하는 것이 기존의 달러화 본위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통화체제로 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의 창출은 IMF의 개혁과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무라 코다로 의원(일본 참의원)은 새로운 투자모델의 개발과 함께 기존의 금융통화체제와 보완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출을 주장했다. 풍부한 유동성과 적은 성장의 기회라는 근본적인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투자의 원칙으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적으로 규제완화, 증여세 감세 등을 통해 투자기회를 높일 수 있으며, 벤처캐피탈과 연기금을 통한 투자도 사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외환관리를 위해서 금융감독, 금융조사 기능을 포함하는 '세계안정화기금'의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글로벌 금융통화체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세계지도자세션 “상생과 공영의 21세기를 향하여”

8월 12일 개회식에 이어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세계지도자 세션이 개최되었다. 본 세션에서는 존 하워드 전 호주총리와 이흥구 전 국무총리가 연사로 참여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공동 번영 구축에 관한 해안을 나누었다.

존 하워드 전 총리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하여 평가하며 과거 대공황과 비견할만한 위기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판이라고 분석하며 당시 북미와 유럽 중심의 경제체제 무게중심이 현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세계화와 개방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호주와 한국은 향후 모든 영역에서 중견국가로서의 공간을 잘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미들파워'의 역할과 기여를 탐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는 “동아시아 평화체제 형성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 협력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영역을 넘어서서 포괄적인 공동체를 향하는 대승적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현재

까지 한반도 통일논의의 기본이 되어온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단순히 단일한통일국가 이전의한민족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에 근거한 협력의 자산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포퓰러적인 가치들 즉, '개방' '정의' '공정성' '안전' 등의 기본원칙들이 존중되는 교감이 형성될 경우 아시아 지역은 빠른 시간 내에 지역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유럽지역 공동체, 미주지역 공동체와의 협력과 연결되어 진정한 글로벌 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제기된 G8과 G20간의 역할 설정의 문제에 관하여 존 하워드 전 총리는 G20의 경우 각 국가가 가진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당면한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홍구 전 총리는 현재 남북경색 국면에 관하여, 세계의 추세는 협력과 공존으로 지향하는 바가 명확한 바, 북한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것인지,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있다고 보았으며,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역사의 선순환적 흐름에 동참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여야 하며, 한국은 이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금번 세션에서는 특별히 한국과 호주의 지정학적, 전략적 위상과 관련된 논의들도 제기된 바, 하워드 전 총리는 한국과 호주의 영향력 규모와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중견국가의 독특하고 고유한 위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실과하였다.

5. 전체회의 II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어디까지 왔나?”

8월 12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공로명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회로 김학수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 홍순영 외교협회 회장, 에브게니 아파나시예프 태국주재 러시아 대사, 찰스 모리슨 미국 동서문화센터 소장, 그리고 왕잉판 중국 전 외교부부장 등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에브게니 아파나시예프 태국주재 러시아 대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된 지난 10년간의 지속적인 평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하고 러시아의 역할과 관심에 관해 강조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동성과 중요성은 하루가 다르게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대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순영 외교협회 회장은 동아시아 대한 지역적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국이나 러시아와 몽골도 지역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지역 평화구축에의 최대 위협은 북핵 문제이며,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학수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ARF, ASEM, 그리고 ASEAN+3의 3가지 다자협력 틀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간 협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급증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범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찰스 모리슨 동서문화센터 소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체제나 지역 공동체가 쉽게 구축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 공동의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과 제재 병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미국의 긍정적인 역할론에 대해 언급하였다.

왕잉판 중국 전 외교부부장 역시 북핵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지금까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할 때 북핵 문제만을 언급하다가 북핵 문제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생과 번영을 논하자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한 미래의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중심주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며, 북한 제재 유엔 결의안 1874에 동의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북핵 문제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동아시아지역에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체 구축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현재 역사, 경제, 가치 등에 관한 갈등에 관한 지역내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고 심지어 전쟁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우선적으로 이러한 위협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자인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은 토론에서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추아 주한 싱가포르 대사는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아세안에 역할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아세안은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그 예로 지난 7월 아세안 국가들은 인권 및 안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6. 전체회의 III “한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과 휴먼뉴딜”

8월 12일 오후 한국의 미래를 구성할 신성장동력과 휴먼뉴딜에 관한 전체 회의가 광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울프 네하바스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과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 대학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민 차관은 향후 한국사회가 직면할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환경, 기술혁신, 그리고 서비스개발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계는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한 혁신의 과제, 그리고 노령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신성장 동력의 과제로 환경, 컨버전스를 통한 기술혁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풍부하고 세계 5위의 R&D 국가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세금감면, 교육환경 개선,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하바스 소장은 최근 기업들이 연구비용, 임상실험 난점 등의 문제로 신약개발을 축소하는 추세라고 평가하며, 게놈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으나, 비단유전적 요인 외에도 환경적 요인과 기타 상황요인들을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기술공유를 통한 신약개발 기술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위치설정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현오석 원장은 신성장동력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휴먼뉴딜 정책의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며, 양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대 및 계급간 갈등의 영향으로 사회 성장동력이 약화되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사회적 투자,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축소시키고,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휴먼뉴딜을 통해 사회 통합, 성장의 공유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프리먼 교수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금융 시스템에 의해 유발이 되었으나, 장기적인 실업, 비정규직 증가, 계급의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는 잡 웨어링, 근로 교육 등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지식의 공유를 통해서만 사회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 동시회의 II: 언론, 안보, 경제, 역사를 아우르며

8월 12일 오후내외신 기자 원탁회의를 비롯하여 전날에 이은 경제, 역사관련 회의 및 안보 관련 동시회의가 개최되어 각각 “한반도지역문제에 관한 언론의 견해”, “세계 무역과 신보호주의”, “동북아시아의 정체성위기와 국가간 문화적 갈등” 및 “제주프로세스와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등 다채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열린 논의가 전개되었다.

- 동시회의 II(내외신기자 원탁회의): 내외신 기자들이 바라본 한반도

본 회의에서는 홍정욱 의원(전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의 사회로 한반도 문제를 취재하는 내외신 기자들이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연합뉴스 이우탁 기사는 한반도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객관적 시각 견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 및 전망에 관한 정파적, 자의적 시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냉철한 외교적 현실을 제대로 전해야 할 언론도 특정 정파에 치우쳐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북문제 보도에 관한 한국언론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코다테쓰야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은 최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급속히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평하며,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본의 대북정책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전망”이라 언급했다. 하코다테 지국장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 태도가 변하고 있는 가운데 유씨 석방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남북관계가 바로개 선되기는 어려우며, 가장 난처한 당사자가 한국이 될 것이라며, “곧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가 다가온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며, 대북정책 선회에 따르는 일시적인 비난과 공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제언했다.

채널뉴스 아시아임연숙 한국 지국장은 외신기자로서 한반도 문제를 취재하는 데 따르는 고충에 관해 토로하면서 평양내 신뢰할 만한 정보원의 절대 부족상황을 설명했다. 덧붙여 한국인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촛불집회를 열지만 금강산에서 있었던 한국인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규탄시위가 없었던 것은 흥미롭다”며 관심을 표했다.

AP 통신 서울지국의 장 리 지국장 역시 북한 취재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정보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직원 2인이 직접 평양에 주재하는 AP TV 보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언급했다. 장 리 지국장은 북한의 패스트푸드 점, 북한 최초의 상업광고(평양 대동강맥주) 등 APTV가 가장 먼저 보도한 북한의 모습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조나단 대처 로이터 통신 서울지국장은 한반도 분단이 가져온 질곡과 비극적 상황에 관해 언급하며 남북 국민 모두 분단 극복을 회고하고 있다고 믿는대면서도 지난 60년간 남북 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남한의 젊은 세대가 통일문제보다는 경제문제에 더 가지는 경향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인식의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 향후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토론 및 질의 시간에는 한국언론의 대북보도가 김정일의 일거수일투족 등 지나치게 세세하고 가십성의 기사로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역사적, 거시적 조망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동시회의 II(안보): 제주프로세스와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 첫 번째 발표자인 타니노 사쿠라토 전 주중일본대사는 현 동아시아 정세를 역풍과 순풍의 이분법으로 설명하며 세계 경제 위기 및 북한핵문제, 그리고 중국의 군 근대화화 일본의 퇴행 등을 ‘역풍(head winds)’으로 규정, 중국 경제성장, 우호적 양안관계 그리고 다발적인 FTA 노력 등을 ‘순풍(favorable winds)’으로 보았다. 고전적 안보위협뿐 아니라 최근 부상하는 정치, 사회, 문화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며, 특히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에 있어 한일간의 공조와 연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판젠창 중국 국방대학 교수는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비전을 구축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선 타니노 대사의 이분법적 접근을 비판했다. 불신과 적대감을 기반으로 협력을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6자회담의 교착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특히 타니노 대사의 양안 관계 분석(중국과 대만의 동등성을 강조한)은 일종의 인식 오류임을 강조했다.

오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공통성과 고도의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안보협력의 구체화는 그 진전속도가 늦다고 분석하며 이는 영토문제, 지역협력경험의 부재, 한반도 및 양안 문제 등 갈등 유발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6자회담, ARF 등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안보협력을 추진하는 여러 노력이 있으나 구조적 한계가 있는바,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는 다자외교의 틀로써 제주 프로세스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피터 헤이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장은 확장 여지와 지역적 다자주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동아시아의 핵문제가 갖는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헤이스 소장은 냉전 시대 미국의 핵확산억지능력은 동맹국들이 인정했으나 최근 미국의 핵체계모니는 여러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핵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보았으며 포괄적인 협상안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주장하였다.

티모 키비마키 덴마크 북유럽 아시아학 연구소 연구위원은 평화 구축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범위에 관하여 언급하며 유럽의 경우 미국의 존재가 평화구축에 일관된 도움을 주었다면,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힘과 존재가 복잡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은 다양한 대화루트의 확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 프로세스의 당위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 시간에는 중국의 행보와 투명성에 관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된바, 판젠창 장군은 중국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더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헤이스 소장은 6자 회담의 동력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필요할 경우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조적 접근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 동시회의 II(역사2): 동아시아 역사 및 영토문제의 재조명

“동북아의 정체성 위기와 국가간 문화적 갈등: 100년 전 동아시아의 역사 및 영토 문제의 재조명”을 주제로 진행된 제3 동시세션 역사패널은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강용범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원 교수,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그리고 쿠로키 모리후미 후쿠오카 국제대학교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 패널에서는 간도를 둘러싼 일본의 간도 조선인 정책의 국제적 맥락, 이범준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해석하는 일본의 시각을 통해 역사적 재인식을 통한 역사갈등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용범 연변대학 교수는 간도와 조선 간민(간도이주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심리적 친화정책이 조선인을 이용하여 연변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침략의 계획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지적했다. 심리적 친화정책을 통해 빈곤한 조선인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부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 궁극적으로는 조선인에게 불리한 문제가 더 컸음을 강조했다. 이런 인심공격 정책으로 인하여 간도 조선인은 중·일간의 민심쟁탈의 대상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중의 불신임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 침략이익을 도모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근대 초기 한러관계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이범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통해 서구 열강의 각축의 장이었던 조선에서 근대적 지식인으로써 이범진의 역할과 의미를 재발견했다. 특히, 친러주의자로 알려진 이범진의 근대 초기 사상과, 특히 러일전쟁 이후 이범진의 행적에 대한 사료의 재발견을 통해 러시아를 포함하여 근대 서구 열강과의 외교적 교류를 통해 근대화를 도모했던 이범진의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소장학자인 쿠로키 모리후미 교수가 안중근 의사의 재판 과정의 녹음자료를 기반으로 안중근 의사를 인류애, 인종적 평등주의, 지역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근대적 지식인이라고 재발견했다. 테러리스트라는 일본의 보

편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의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안중근에 대한 일본 소장학자들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평화, 인권, 박애, 그리고 평등을 주장했던 안중근에 대한 일본 학자의 연구는 동아시아 근대 역사에 대한 탈국가적 환기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 동시회의 II(경제2): 세계 무역과 신보호주의

본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과 신보호주의”를 주제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근시안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게 될 위험성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였다. 안중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은, 금융위기로부터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차원에서는 자유무역체제의 유지 및 강화가 필요하지만 개별 국가차원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국내정치적 필요에 따라 보호무역정책이 선호되는 갈등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자유무역주의의 미래, 신보호주의의 발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비노드 아가왈 교수(버클리캘리포니아대학교)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산업 정책과 신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채택된 정책은 정부나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현실에 관한 데이터 축적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국의 보호주의와 산업정책은 다양해서 국가에 따라 정부 또는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시장경쟁에서의 패자가 정책적 보호의 대상이지만, 중국에서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호주의적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의 실태에 대한 연구와 축적을 통해 글로벌 자유무역 규범이 확고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관은 보호주의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G20와 같은 국제제도를 통한 감시와 규제 중 중요성을 강조했다. G20가 시작되기 전에는 각국의 무역관행을 검증하는 메커니즘으로 WTO의 TPR(무역정책검토회의)이 존재했다. 이는 한 국가에 대한 무역정책을 동료 또는 타국이 검증하는 것으로 실제로 실효적인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유무역규범을 유지하는 행정적 기능을 행사해왔지만 각국이 처한 정치적 현실을 규제하는 규범으로서의 제약과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G20는 자유무역 규범의 유지와 국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규범을 실행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기구가 되었다.

리 웨이 부연구위원(중국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은 보호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경제의 50%가 가공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구조적 특성상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수출과 수입부문의 보호주의는 상대적으로 중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 및 개도국 시장의 침체, 특히 신보호주의로 인한 무역규제는 중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가공무역에 기반한 수출주도를 통한 중국의 산업구조의 특성상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으며, 중국경제의 침체는 세계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시장의 자유무역 환경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라타 슈지로 교수(와세다대학교)는 전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각국이 관세, 비관세 조치 등의 전통적 수단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부구매 등에서 숨겨진 보호무역 조치를 채택하고 있고 무역관련 규제의 내용과 컨텐츠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WTO의 허점의 하나로 공개된 관세율과 실제 관세율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무역정책의 투명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G20, 도하라운드 등의 국제적인 거버넌스의 제도화와 감시 및 규제기능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위기를 이유로 증가하는 전통적, 비전통적 보호주의 수단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인 감독기능 체계의 확립, G20의 정치적 리더십과 실질적인 실행, 지구적인 도하라운드의 재개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도 FTA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8.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기조연설

(동아시아 신 다자주의를 위한 안보, 경제, 환경의 3대 축 제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제5회 제주평화포럼 기조연설에서 동아시아의 신다자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안보, 경제, 환경의 3대 축을 제시했다. 신다자주의는 아시아의 기회이자 도전임을 강조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부합하는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인식과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반기문 총장은 현시점을 다자주의의 기회와 도전의 시점으로 진단했다. 식량, 에너지, 신종 플루, 그리고 금융위기 등 이전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전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인류가 이러한 신종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 다자주의, 인류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낳은 실용적 다자주의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음을 강조했다. 다자주의의 구축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결여이며 지도자들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계적 선을 위해 아시아 지역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향력이란 단순히 재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와 혁신을 낳은 능력의 발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반 총장은 아시아에서 신 다자주의를 발전시키는 세 가지 축으로 안보, 경제, 환경을 제시했다. 첫째, 안보의 축이다. 반기문 총장은 ASEAN, ARF 등 아시아의 지역안보의 협의와 협력의 다자적 프레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계속적인 상호신뢰, 신뢰구축, 그리고 예방적 외교를 위한 노력이 지속 발전되어야 하며 특히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어려움에 직면한 6자회담의 역할은 역내 다자안보 메커니즘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둘째, 경제의 축이다. 반기문 총장은 아시아 통화기금이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금융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시아 통화기금은 국제통화기금을 보완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 및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교통, 운송 인프라와 사회적 보호에 대한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국가 시장과의 상호의존이 심화되어야 하며, 그 하나의 사례로 광역두만강 개발 구상(Great Tumen Initiative)은 동북아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강화하고 정책대화를 확대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셋째, 환경의 축이다. 기후변화는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전지구적 문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의 리더십과 정치적 의지, 그리고 아시아 공동의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초국가적인 재해위험은 아시아 다자주의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의제이며 이에 대처하고 기후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눈부신 경제발전을 경험한 한국의 경험은 아시아와 세계의 중요한 자산이며, 공적개발원조, 신 아시아 외교를 통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을 강조했다.

반기문 총장은 본인의 외교통상부 재직시절의 제주평화포럼과의 인연 및 재직 당시 본 평화포럼의 주관 기관인 제주평화연구원 건립 주무 장관이었음을 회고하며 본 5회 포럼 참석에 대한 소회와 각별한 인연을 피력하였다.

9. 전체회의Ⅳ “세계금융위기, 위험관리, 기업경영: 아시아 태평양의 시각”

전체회의Ⅳ에서는 세계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위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위기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의 사회자인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 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위원은 모두에서, 금융위기가 금융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평화와 상생, 공영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줄어드는 대신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의 증대가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스펜서 김 CBOL Corporation 회장은 이번 금융위기가 금융상품을 통해 금융 리스크가 분산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 아래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하게 금융상품 개발하고, 냉전 체제 이후 급격히 강성대국이 된 미국이 이제는 세계 각국이 성장하며 평형된 상태를 이루어가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은 미국 수출에 과도히 의존하지 말고 내수 시장의 확대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외 무역에서 수입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업은 금융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타나베 요시히로 국제금융문제연구소 회장은 최근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시안적으로 신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경제 회복에 타격이 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시아는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조망 받고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력을 통해 공동의 통화를 만들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한국과 일본 등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지적하면서, 노령화로 발생할 사회적 부담에 대비하는 한편 노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보험, 평생 교육 등의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녹색 성장과 균형적 성장을 위해 도시화로 인한 문제나 낙후된 산업 기반의 개선이 논의되어야 아시아 전체가 보다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1997년의 금융위기와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비교를 통해 금융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IMF 위기 당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취약한 입장에 처해 있었으나, 현재의 위기에서는 반대로 미국과 유럽이 취약한 입장에 처해 있고, 아시아 국가가 아시아의 금융 안정성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현 회장은 특히 동아시아의 금융기관이 미국이나 유럽 기업의 철저한 분석과 실사를 통해 자국의 투자자와 서구의 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업은 핵심 역량의 강화와 선제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제를 확립하며 수출 중심으로 외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자본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강정원 국민은행 행장은 은행이 파생상품의 등장 이후 관리 능력 밖까지 상품을 확대시켜 내부 통제 불능 사태와 위기 관리 결함을 보이며 큰 위기를 맞았으나, 규제 당국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기 발생 이후 은행은 관리 당국의 경고와 생존 보호를 위해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시작했고, 적합도 테스트를 통해 고객의 필요에 부합하고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힘썼다. 강정원 행장은 한국이 근본적으로 건전한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외화부채의 회수 사태가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기관 자체의 문제일 뿐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동아시아 경제가 체계적인 채권 시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외화 대출 규모의 확대를 견제하고 다양한 국적의 대출 기관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 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위원은 과거 아시아의 노동중심의 산업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은 저급 노동력을 이용하여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만들 수 있었고, 중국의 저렴한 제품들이 전세계적으로 수출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자금 유동성을 높여 단기, 장기의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인플레이션의 진행과 함께 통화의 가치가 오르면서,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중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며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고부가가치 사업과 서비스 사업, 민간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산업 구조변경을 꾀하며, 전세계적인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불안과 기득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지속되고 있는 금융 시장의 규제를 없애고, 은행 투자에 대한 통제 정책 변화 등의 실질적인 경제 부양책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세계 경제 중심에 있고, 경제위기 회복의 중심에 있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올레그 테리파스카 베이직 엘리먼트 그룹 회장은 러시아는, 영토의 3/4가 아시아에 위치하고 약 3,0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아시아 쪽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의 영향을 받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GDP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상당히 높다. 점차 감소하는 외화보유고와 자국 통화의 가치 저하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났으나, 아직 자유시장 중심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했고, 러시아 경제의 60%가 국영기업에 의



존하는 경향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금융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실시하면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러시아는 국민의 40% 이상이 다민족인 국가로, 국가차원의 안정성을 보유했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10. 전체회의 V: 외교관 원탁회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촉진: 선행적 외교의 역할을 탐색하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를 사회로 진행된 외교관 원탁회의는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선행적 외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레그 대사는 모두 발언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협력을 진전시킬 수 없으며 거래를 원하는 북한과 고위급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북시 북한 인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정권변화가 초래하는 불연속적 정책으로 인해 정책변화가 불가피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며, 관계의 규칙이 정권에 따라 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6자 회담의 정체와 실패에 일본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했으며 재발방지 약속을 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이 문제에 더욱 집착함으로 인해 문제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신뢰나 정보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위급 차원의 대화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글레브 이바센토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유럽에서 석탄철강공동체를 통해 지역연합의 극적인 단계를 이루어낸 것처럼 극동 지역에서 가스 및 자원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협력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경제 개발과 발전에 긴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이해가 중첩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차원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은 러시아의 정치적 이익에 매우 중요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는 아니며 6자 회담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것인 만큼 6자 회담의 복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체제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북한은 6자 회담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다양한 대화를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브라이언 맥도널드 주한 EU 대표부 대사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한편 무역의 확대나 지역통합의 가속화를 위해서 도하리온드가 재개되어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제도화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동아시아의 협력문제에 관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행동대 행동, 봉쇄정책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대화와 협력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을 긍정적인 해법으로 평가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차관은 동아시아에서 다자간의 안보협력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을 위해 외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신각수 차관은 외교의 목적은 공동의 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동의 이익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동아시아의 다자적 안보질서의 틀은 북한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다자 안보협력 체계의 형성에 있어서 필요한 외교의 원칙으로 (1) 개방성, (2) 포괄적이고 유연한 의제, (3) 조화와 조율의 원칙 등을 강조했다.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관계는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로 기능해왔고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자적 협력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다양한 다자주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6자 회담 역시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동아시아는 미국의 안보와 평화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미국 정부의 정권교체로 인해 대아시아 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효과적일 것이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며 세계에서 책임 있는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확고한 협력지임을 강조했다.

11. 한국의 국제화 교육, 제주 영어 교육도시가 견인한다

제주평화포럼 동시회의에서 “국제화시대에서의 한국의 교육: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12일(목) 오후 3시 40분에 해비치호텔 크리스탈룸에서 열렸다. 본 회의는 연세대 문정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JDC 프로젝트 매니저인 크리스토퍼 보그덴 씨의 발표가 있었으며, 토마스 펜란드 대전국제학교 교장, 윤정일 민족사관학교 교장, 황선준 스웨덴교육청 정부 재정국장등 6명의 전문가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크리스토퍼 보그덴 JDC 프로젝트 담당매니저는 영어교육도시의 장점을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육자들이 그들을 가이드하게 하며 역동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가진 교육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세계적 명문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수월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목표는 단순히 영어습득에 머무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는 배움의 가치와 학생의 성장을 끌어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를 시행한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역설했다.

- 불암 Christopher Bogden 발표자료

제주영어교육도시 세계적 명문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수월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목표는 단순히 영어습득에 머무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명문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수월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목표는 단순히 영어습득에 머무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명문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수월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년, 수천에 달하는 한국 학생들이 영어에 유창해지기 위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히 영어교육에 있어서 해외에서 공부하려는 트렌드를 바꾸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움이 되는 동시에 교육 분야에 있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퀄리티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의 남쪽 끝 그리고 동북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제주를 공부할 위한 선진적인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영어를 쓰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학생들을 유인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학생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고 또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육자들이 그들을 가이드하게 하며 역동적이고 동시에 문답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통한 엄격한 교육 커리큘럼을 가진 교육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적 명문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 세계적 명문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수월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목표는 단순히 영어습득에 머무르는 대신에 하루하루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는 배움의 가치와 학생의 성장을 끌어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세계적 명문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수월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목표는 단순히 영어습득에 머무르는 대신에 하루하루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는 배움의 가치와 학생의 성장을 끌어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어교육도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영어에 있어 유창함과 정확성을 성취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교육과 일상생활이 영어만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어내어 해외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학생들과 도시의 거주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해줄 수 있



도록 고안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부터 온 다양한 나라로 구성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국제 언어인 영어를 정규학습과정과 다양한 학습기회에 대한 노출을 통하여 습득하게 됩니다. 영어교육도시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흥미와 능력을 만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독립적이고 창조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기술을 갖게 하는 한편,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영어교육도시의 설계는 교육커뮤니티라는 개념을 지지하고, 또한 배우고, 삶 그리고 여가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학습과, 생활과 그리고 주거에 대해서 한결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과 연동된 일상 환경을 가진 활발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영어권국가와 같이 쇼핑과 식사와 같은 모든 일상생활들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지성적인 대화 또는 전시회, 공연 그리고 여러 포럼에 제주도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교육과 사회활동의 초점이며 동시에 보행자 도로인 학습의 길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실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학습의 길은 학생, 교육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보다 창조적이고 인터랙티브한 방법을 통하여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제주의 특별한 자연환경을 장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새로운 공원과 정원 그리고 여러 녹색환경과 결합한 도시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수분의 거리 내에 승마, 요트, 카약, 골프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이곳 학생들과 거주자들이 즐기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도시를 목표로 이 도시에는 최첨단의 유비쿼터스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최고 수준의 U-시티로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중단없는 무선인터넷환경을 어느 곳에서부터 제공해주어 도시 내에 살고,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질과 동시에 교육 경험을 무한하게 제공해주게 됩니다.

- 도시계획 환경

• 학교 존(1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국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세계최고수준의 명성을 가진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대학 존(단일 캠퍼스를 공유하는 많은 대학들)

교육, 생명공학, 예술, 정보공학 경영, 인문, 자연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제학문분야에 학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식커뮤니티를 설립합니다. 어떠한 자본의 투자도 요청되지 않습니다. 파트너 학교들은 교실, 기숙사, 도서관, 카페테리아, 강당 그리고 체육관을 필요한만큼 빌릴 수 있습니다.

• 교육문화예술 존

모든 나이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교육, 문화 그리고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교육문화예술 존은 오페라, 음악 그리고 연극, 강의, 전시회와 예술, 종교, 철학, 과학, 정치학과 스포츠를 비롯한 많은 학문에 관한 세미나를 포함한 20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영어교육센터

영어교사들에게 수준 높은 훈련과 직업적 개발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 영어를 교육하고, 학생들의 성취와 성공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들에 대한 연구를 교사들에게 지원합니다.

• 주거, 상업 그리고 문화 시설

주거단지는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제공하고 영어가 공용어가 되는 상업, 문화, 그리고 레저공간이 부근에 위치하게 됩니다. 도시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건물과 녹지공간의 설계에서부터 영미권 국가를 모델로 하며, 거리, 공공시설, 병원 그리고 쇼핑센터의 사인물들은 모두 영어로 표기됩니다.

• 시장가능성

초·중·고를 비롯해 한국인은 영어교육에 연간 15조원의 돈을 대략적으로 투자하며 영어습득에 있어 매우 열정적입니다. (2006년 11월에 삼성경제연구원 연구결과)

한국 정부는 국가적인 정책개혁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영어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4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해외학습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크고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는 1995년의 2,259명에서부터 2006년의 29,511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의 수준보다는 10배이고 지난 5년 동안만 보자면 약 4배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자 유학하는 학생은 2001년의 5%에서 2006년의 13.4%로 증가했습니다.

해외조기유학에 대한 주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28%), 국제적인 시야를 기르기 위해서 (19%), 국내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서 (19%). 해외에서 공부하는 한국학생들의 총수는 연간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교육에 대한 수요는 국가를 초월한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교육 트렌드와 보조를 맞추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외교육수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해외에서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잠재적인 관심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08년 JDC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대략 구십일만명의 응답자가 그들의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고 싶어 했으며, 사십오만명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호응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등이 다른 잠재적인 시장수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초·중·고 등 학생들의 수는 대략 구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들 중에서 0.23%에 달하는 이십일만명이 현재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아시아의 교육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닌 제주에 일류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최첨단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들어, 영어만이 사용되는 환경에서 자율적 지성과, 창조성 그리고 호기심이 육성되는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를 창조해 내기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 전체회의Ⅵ “국제적 맥락 속의 국가브랜드 추이, 현안 및 실행전략”

제5회 제주평화포럼 마지막날인 8월 13일 “국제적 맥락 속의 국가브랜드”라는 주제로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사회를 본 회의에서 어윤대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였고, 사 이먼 안홀트 안홀트 국가브랜드 지수 개발자, 이동훈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버나드스피츠비에스카운셀 창업자 겸 CEO를 비롯 국내외 국가브랜드 전문가가 다수 참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임성준 이사장은 한국경제의 규모는 작지 않지만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이미지는 세계 30위권 밖이라고 지적하고 국가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구체적 제고방안으로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개발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협력이나 경쟁우위에 있는 부문을 특성화 시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제주평화포럼이

국가브랜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논의의장이 되기를 기대했다.

"한국의 국가브랜드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국가브랜드 창출 노력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어 위원장은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World Friends Korea" 명칭된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10개의 특정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5개국 4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IT 및 기술, 한국음식, 그리고 한국드라마의 순서대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산업을 특성화 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된 ODA 등의 형태로 성공의 열매를 국제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가 브랜드 듀얼 옥타곤 모델 (Nation Brand Octagon Model) 등과 같은 국가 브랜드 지수가 개발되었는데 이 국가 브랜드 지수 모델이 안홀트 국가 브랜드 지수 모델과 같은 세계적인 국가 브랜드 지수 프로그램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이몬 안홀트 국가 브랜드 지수 개발자는 국가의 이미지가 좋으면 외교/정치/경제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언급하며 국가 브랜드에 관한 전문연구가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안홀트는 남아공과 아일랜드와 같이 국가 이미지가 변화된 예를 들며 국가 브랜드라는 것이 단지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전략에 의해 제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총체적인 국가 정책의 변화와 실행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국가 브랜드 제고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명성은 단순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성을 얻을 만한 행위를 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동훈 삼성경제 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 연구원은 국가 브랜드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수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하며 독자적인 지수를 개발하는 노력을 해 왔으며 그 결과로 부, 거버넌스, 문화, 국민과 주권, 영토, 국가 등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국가 브랜드 듀얼 옥타곤 모델 (Nation Brand Dual Octagon Model) 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상용화하기 위해 실제적인 테스트 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버너드 스피츠 비에스카운셀 CEO는 한국에 대한 유럽인의 시각, 특히 프랑스인이 보는 한국에 대해 발표하였다. 프랑스인들이 인식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순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순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이의 원인은 첫째 한국의 상품 브랜드는 한국의 브랜드라기보다 다국적기업의 브랜드라는 인식이 강하며, 둘째 한국의 문화가 과소 평가 받고 있고, 셋째, 한국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및 유명인사가 그다지 없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부정적인 이미지의 영향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국내외의 전방위적 노력 및 장기적인 계획 필요하며, 특히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마케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서울대학교 조동성 교수는 한국이 ODA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한국의 국가 위상을 상당히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개인들이 다 다른 인식을 하듯이 개별 국가들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각자 틀리다면 국가별로 특화된 국가 브랜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다. 김유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북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의 국가 브랜드의 상관관계를 철저히 연구하고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브랜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13. 동시회의 Ⅲ: 국가브랜드, 지속가능 경영, 동아시아 인간안보, 제주영어교육도시

제5회 제주 평화포럼 마지막날인 8월 13일 오후 세 번째 동시 세션에서는 "국가브랜드 세션: 국제협력분야의 한국 국가 브랜드", "지속가능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 "동아시아 인간안보: 기회와 도전" 그리고 제주 타운홀 회의인 "국제화 시대의 한국 교육: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연구" 등 4개의 회의들이 진행되었다.

- 동시회의 Ⅲ(국가브랜드1): 국력에 걸 맞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고민하다

국가 브랜드 전체회의에 이어 국가 브랜드를 주제로 개최된 “국제협력 분야의 국가 브랜드” 동시회의에서는, 오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의 사회로 국제사회에서 국가 브랜드가 갖는 중요성과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와 실무자의 견해가 교환되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사이몬안홀트 국가브랜드 지수 개발자는 CEO를 정점으로 소위 독재적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 브랜드”와 민주적인 “국가 브랜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국가는 복잡한 주체이며 따라서 국가 이미지에 대해 여러 모순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Integrity”의 개념이 유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중요한 점은 대중과 엘리트의 구분인데, 엘리트들은 브랜드 이미지에 설득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국가미래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과는 다르다. 배심원같은 존재인 대중들로 하여금 특정 나라를 알게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 국가미래방향을 설정하는 공유된 비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며 2) 국가의 특성이 무엇인지, 3) 자신들이 어떤 이미지나 명성을 받고자 하는지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4) 실천적인 단계에서 그러한 명성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substance)’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5) 상징적 행동으로 대표되는 “X요소(X factor)”도 중요하다. 특히 대중들의 인식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의 이목을 끄는 내용과 방법이 필요하다.

두번째 발표에 나선 장시정 한국국제협력단 이사는 특정 국가가 개발협력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한국의 ODA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음에도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ODA를 증가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강하며 2020년까지 GNI의 0.25%로 증가시킬 계획에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대외적인 로드맵과 홍보도 중요한데 대중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고위관료들의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 단순한 경제협력이나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ODA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는 수요국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기준에 걸맞은 행위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ODA 정책을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가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국가 브랜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 남가주대학교 니콜라스 쉘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국가 브랜드와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인터넷, IT 분야에서 긍정적 이미지가 크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자살율, 알코올 중독률, 증대되고 있는 이혼율과 한 국제품의 가격 폄하 등 부정적 이미지도 크다고 지적하였다. 전통적 외교의 개념과 공공외교는 주체가 국제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tool)이 다르다. 공공외교의 요소는 1) 남의 의견 잘 듣기(Listening), 2) 옹호(Advocacy) 3)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 4) 인적, 지적 교환(Exchange) 5) 국제방송(International Broadcast)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하나의 큰 틀 속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공공외교에 관하여 평가하자면, 한국의 공공외교가 한국의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성숙화 및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 비해 국가 브랜드 구축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인 만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정화 교수는 한국이 열정, 전통, 경제발전 및 한류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분단, 북핵, 부정적 과거사, 거리시위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사나 정치 현안에 대한 부분은 조정하기 힘들겠지만 문화, 첨단 기술 등의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긍정적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 전통과 고기술을 결합하여 한류와 같은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대상별로 국가 브랜드 전달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에 대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00만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차거리 전략”을 제안하였다. 즉, 볼거리(See), 먹을 거리(Eat), 즐길 거리(Enjoy)와 말할 거리(Talk)의 네 요인의 충족이다. 앞으로 G20 정상회의를 잘 활용한다면 2002년 월드컵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윤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은 토론에서 한국이 ODA, PKO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의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교수는 토론에서 국가 브랜딩이 일종의 soft power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자기를 평화국으로 브랜딩하고,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브랜딩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브랜딩은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외부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동시회의 Ⅲ(경제3):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찾아... 지속가능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

서울대학교 조동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속가능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 동시회의에서는 기업에서 NGO뿐만 아니라 대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경영의 현황 및 과제에 관하여 전문가와 실무자의 견해가 교환되었다.

조단 시각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가능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환경적인 투자는 꼭 필요하며, 환경적인 투자는 소비자의 선호도 상승, 기업의 영향력 상승 등의 경쟁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환경적인 질과 제품의 질을 연관시켜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기업의 다른 부분에 긍정적 효과를 전파시켜 전체 생산 라인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도선 울산대 교수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경영, 리더십 발휘, 사회 책임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은 아직 지속가능 경영 분야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지속가능 경영의 공공분야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의 투입이 우선시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채용과 관리가 쉬운 인적 자원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기관은 명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경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한국의 비정부기구(NGO)는 사회 정의, 민주주의 달성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NGO는 일반 대중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단체 내부의 재정적 문제, 불확실한 비전, 과중한 업무로 전체 중반 이상이 활동을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하며, 복합적인 이유로 NGO들이 리더십과 주도권을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민주주의의 강화, 지역 공동체의 회복, 사회 기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근관 서울대학교 기획부실장은 지속가능성은 사회, 경제, 환경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는 2008년 7월 샷포로 지속가능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울대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생애를 이어주기 위해서 시기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정책 입안자들과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으로, 연구와 실천, 협력을 통해 환경적인 캠퍼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서울대학교는 이산화탄소와 폐수 절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단체의 설립과 학생들의 정보 인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효상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은 조선일보의 학교 개선운동 캠페인을 소개하며 언론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 발표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이 우선되어야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며, 언론은 공정한 보도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언론의 수익은 사회에 반환되어야 하며, 공익을 유념하여야 한다. 조선일보는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내포하며, 공정한 보도와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한 환경 개선 운동을 하고 있다.

- 동시회의 Ⅲ(안보2): 동아시아 인간안보, 다자 안보의 토대가 되어야

스테인 토렌스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안보 패널에서는 “동아시아 인간안보”를 주제로 동아시아의 비전통적 안보현안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첫 발표자인 존 스웬슨-라이트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인간안보 논의에서 뒤쳐진 아시아의 국가는 광범위한 인간안보 개념을 수용하고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정책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간안보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며 국내정치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인식과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각국은 미국과의 유연한 협력을 통해 인간안보에 대한 아시아의 현실을 극복하고 비전통적 안보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 등 범세계적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아시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했으며, 지역 내부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의 다자적인 제도적인 틀, 즉 ASEAN+3, ARF, APEC

등의 기구들간의 조화와 조정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카하 쓰네오 몬트레이 국제연구소 교수는 아시아의 인간안보, 특히 질병, 납치, 이주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민간기구간의 다자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일간 불법 이주노동은 인권유린을 포함한 비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맹점을 낳고 있음을 설명하며, 납치, 에이즈 등의 문제에 대한 국가간의 제한적 협력을 뛰어넘어 지역, 국가 및 민간기관을 포함하는 다자적인 협력이 활성화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정부간 고위층 접촉을 통한 북한의 인권개선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대안으로 북-중 교역에 참여하는 중국 상인과의 협력을 통해 이 북한 인권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 함경도와 중국의 지린성 접경지역 교역 관계 연구를 통해 북중 교역이 북한의 경제적 수입에 미치는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이 인민군, 노동당 및 북한 정부와의 구조적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북중 접경지역을 정부와 시민단체가 북한의 인간안보를 증진시키는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정부와 NGO는 북한에 대한 인간안보적 개입 노력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인간안보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칙이 아니라 유연하고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 인간안보와 국가안보간 상충문제에 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제적인 조율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인간안보 지수 개발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국가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NGO의 역할 강화, 그리고 탈북자 문제를 인간안보의 문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 동시회의 III(제주2): 국제화 시대 한국교육 견인의 비전, 제주영어교육도시

8월 13일 오후 국제 영어 교육도시로서의 제주도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동시회의가 개최되었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로 크리스토퍼 보그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프로젝트 매니저, 김인석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 윤정일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존 린튼(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토마스 펜란드 대전 국제중학교 총장, 황선준 스웨덴 교육청 정부재정국 국장이 참석하여 국제학교와 영어교육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는 사회자 문정인 교수의 제안에 따라 발표자의 발표 이후 토론자들이 각각 사회자가 제기한 물음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발표를 맡은 크리스토퍼 보그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프로젝트 매니저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규제가 거의 없고, 신비로운 자연경관을 가졌으며 두 시간 안에 동북아 주요 국가들로 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어 이미 충분한 매력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교육도시에 많은 해외 학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윤정일 교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 아니지만 높은 거주비용 문제와 교통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를 지적했다. 토마스 교장은 수원의 국제학교와 자매결연을 성공적으로 맺은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정부, 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국제교육이라는 것에 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모종린 전 연세대 언더우드 대학 학장은 발언을 통해, 연세대 국제학부의 경우 한국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2/3, 해외 학교를 졸업한 1/3 정도 입학하고 있으며, 해외 학생 유치비율 제고가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세브란스의과대학 존 린튼 교수는 한국이 문화개방을 했을 때 주저했다면 지금의 한류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개방을 통한 교육 개혁을 위해서 국제 학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인석 교수는 영어 실력 증대를 위해 노출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주 국제 교육 도시는 노출 빈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환경을 구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영어몰입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영어 학습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학교들이 IBC, WASC와 같은 국제 학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시장 매력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14. 동시회의Ⅳ: 핵과 북한의 미래, IT 국가브랜드, 동아시아금융시장과 제주국제금융센터

제5회 제주 평화 포럼 마지막 동시회의가 열린 8월 13일 오후 “핵, 계승정치, 그리고 북한의미래”, “IT 경제분야의 한국 국가브랜드”, 그리고 “동아시아의 금융 시장발전과 제주국제금융센터”를 주제로 하는 3개의 회의들이 진행되었다.

- 동시회의Ⅳ(안보3): 북한핵의 도전과 권력 승계를 둘러싼 북한의 미래를 고민하다

8월 13일 오후 “핵, 계승정치, 그리고 북한의미래”를 주제로 제 5차 제주평화포럼마지막 동시회의가 열렸다. 유재건 전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 발터 클리츠 나우만재단 서울사무소 소장이 각각 발표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은 핵실험과 북한승계 문제에 관해 언급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하는 등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남 소장은 북한이 설부른 판단으로 오바마 정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며 오바마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핵 없는 세계를 만들 것이라 한 만큼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소장은 북한의 후계문제에 대해 ‘만경대일가’, ‘150일 전투’ 등 김정일에서 김정운으로 3대 승계가 이뤄질 조짐이 보인다면서 3대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 더욱 폐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로 북미관계의 급격한 개선이 점쳐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한반도 관계는 앞으로도 냉각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교수는 여전히 북한이 한국안보에 위협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 방안으로 최 교수는 자체 방위력의 강화, 한미관계의 공고화, 중-미, 한-중 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조 모색 등을 꼽았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는 전쟁, 정밀 타격, 경제적 제재 등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세 가지 방법 모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 세 가지 외에 포용정책(engagement)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정책이 효과를 내기에 북한 집권층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며 여기에도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처럼 어떤 접근법이든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묘안을 찾기는 어렵지만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일관된 신호를 보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발터 클리츠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소장은 십 수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 나름의 사고방식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터 소장은 북한은 늘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기를 원한다고 언급하고 핵을 가지려는 것도 협상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발터 소장은 북한이 양자교화와 양자관계를 늘 희망하고 있다며 6자 회담에 있어서도 다자적 접근만을 강조하는 것 보다 북한의 선호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발터 소장은 지난 15년간의 남북관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동시회의Ⅳ(국가브랜드2): 한국의 강점과 가치 창출의 근거, IT 분야의 국가브랜드 자산

“IT 경제분야의 한국 브랜드” 동시회의는 조동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케이스 디니 템플대학교 일본캠퍼스 교수, 박상훈 인터브랜드 사장, 한충민 한양대학교 교수,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장대련 연세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IT 산업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국가브랜드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케이스 디니 교수는 국가브랜드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적이라고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브랜드와 국가이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가브랜드가 슬로건만 만든다고 확립되지는 않고 경제 및 문화 그리고 인적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한국의 경제 규모와 문화적인 발전은 한국이 국가브랜드를 확립하는데 최적의 시점이며, 국가브랜드 위원회와 같은 통합적인 국가 브랜딩 기구를 만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브랜드를 확립하는 것은 단지 기업브랜드를 홍보하는 것 이상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류, 태권도, IT 등 한국을 대표하는 부분별 국가 브랜드를 활성화한 후 하나의 통합적인 국가브랜드를 만드는 형식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디니 교수는 서울의 예를 들면서 한 국가의 도시가 그 국가 자체보다 브랜드 인지도에서 능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브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브랜드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하였다.

박상훈 인터브랜드 사장은 국가의 산업 브랜드가 국가브랜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 하였다. 박상훈 사장은 각 국가마다 그 국가를 대표하는 산업 브랜드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탈리아 패션, 독일 차, 프랑스 와인, 벨기에 초콜릿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국가 산업 브랜드는 국가 브랜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은 IT 및 기술분야 산업들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예를 들며 전자산업들이 일본의 국가 브랜드를 이끌어 왔으며, 이제 한국도 삼성과 LG와 같은 유수의 전자산업 브랜드가 국가 브랜드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은 이 브랜드들이 한국의 브랜드인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좀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충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확립하는 데 있어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특히 외부의 인지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기업, 도시, 음식 등 특정 부분에 치중해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주문했다.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 국가 브랜드와 제품의 브랜드 마케팅을 비교하며 한국이 어느 한 제품처럼 브랜드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제고하고 브랜딩 목표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국가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슬로건 로고를 만들거나 국가 브랜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법이 있지만 단순히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많은 기관들과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거나 기관간의 신속한 정확한 의사소통 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은 한국의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 혼자만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므로 이제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역할의 하나로 한국은 현재보다 ODA의 규모를 늘려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통해 그린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대련 연세대학교 교수는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처럼 국가에 대한 이미지도 부분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따라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 교수는 이어서 이런 통합적인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진정성 문제에 있어서 자국의 문화를 속이면서까지 국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 브랜드라고 하면 꼭 그 대상이 서구사회일 필요는 없으며 한국은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아시아지역에 대한 국가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동시회의Ⅳ(경제4): 동아시아 금융 시장발전과 제주 국제금융센터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의 사회로 하여 “동아시아의 금융 시장발전과 제주국제금융센터”를 주제로 박윤식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의 기조 발제문에 대해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오갑수 제일은행 부회장, 이후명 기획재정부 과장, 토니 미첼 대표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국내외의 건설적 비전과 비판이 토의되었다.



강철준 교수에 의해 대리발표된 원고를 통해 박윤식 교수는 한국은 동북아의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산업이 21세기를 이끄는 녹색성장의 동력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제주 금융센터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느슨한 금융규제로 인한 부실하고 위험성 높은 금융상품으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OECD와 금융안전기구(FSF)의 세제규제와 금융보증(ring-fencing) 규제를 실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구적 금융 위기는 기존의 금융센터와 기구들을 보수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제주도의 역외금융센터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센터 보다 국제금융비즈니스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철준 교수는 토론에서 박윤식 교수의 제안에 적극 동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대의 자치권을 획득해서 제주 역외금융센터(OFC)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국제 금융 활동과 거래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제는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OFC 역할은 계속될 것이며,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의 경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계획에 의해 건설된 만큼 제주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감독기구의 협력과 함께 적극적인 자치권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스탑 서비스 등 차별화된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역외금융시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극복을 위해서는 제주 국제비즈니스 금융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명 과장은 역외금융센터 도입을 위해서 세제혜택, 기업 친화적 환경, 그리고 특화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 사업은 정부에서도 역점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전제했다. OECD는 지금 자유화의 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국내금융기관과 비거주자에 대해 무조건적인 세제혜택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규제와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나 역외 금융센터를 해외로 간주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한정하는 제도장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하게는 특화된 경쟁력으로 후발주자로서의 제주도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지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역외 금융 센터를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우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발전모델을 우선 추진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역외 금융센터를 2단계로 추진하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 기반을 다진 후, 그런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국내외 우수기업체, 인력을 유치하여서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을 유치하여 소규모 금융허브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니 미첼 대표는 제주는 금융센터에 대한 잠재성이 있으며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민간부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으며, 조만간 이 지역이 경제중심지가 될 것이므로 역외 금융센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이나 친기업환경의 조성을 통해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역외금융센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어를 활용하는 인적자원의 문제를 두바이의 예처럼 외부 전문인력의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갑수 제일은행 부회장은 제주도의 역외금융센터 추진은 산업구조와 여건상 경제와 금융에 대한 개방이 발전의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후발주자로서 제주도는 다른 역외금융센터와 경쟁하게 될 것이며 규제 및 세금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는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등의 국가와 연계를 확대하고 관광, 외국인 거주 매력, 국제학교, 삶의 질의 측면에서 경쟁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잠재성은 있으나, 이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는 제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매력적으로 만들어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 제5회 제주평화포럼 성황리 폐막

2009년 8월 11일 ~ 13일까지 제주 해비치 호텔 & 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제주평화포럼이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135명(외국인 78명)의 전·현직 관료 및 내외 전문가들이 연설, 발표, 토론 등으로 참여하고 5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Shaping New Regional Governance in East Asia: A Common Vision for Mutual Benefit and Common Prosperity) 라는 표제 하에 안보, 경제, 역사, 국가브랜드 등 다양한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금번 제5회 평화포럼은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이라는 기존 범주에서 벗어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최근 부상하는 아세안 등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과 연관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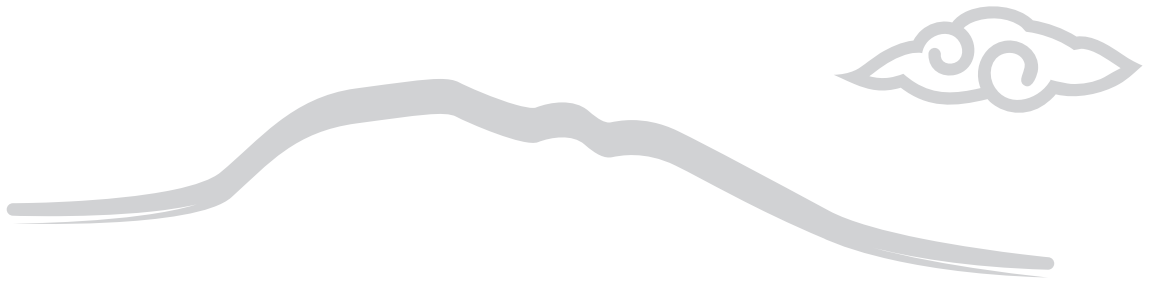
특별히 12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약천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상생과 공영 거버넌스’에 관한 기조 연설을 통해 제주포럼의 중요한 의미와 향후 비전을 재확인했으며, 13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에서 동아시아 신디자인주의를 위한 안보, 경제, 환경의 3대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직 정상급 인사로 존 하워드 전 호주총리와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세계 지도자 세션에서 동아시아의 상생과 공영을 위한 해안과 고견을 내놓을 수 있었다.

6차례의 전체회의 (plenary sessions) 및 12차례의 동시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디자인보 및 평화체제 구축 등 기존의 안보 쟁점과 향후 신성장동력과 휴먼뉴딜 등 한국의 미래에 관한 비전이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시각과 입장을 교환했다. 더불어 국제적 맥락에서의 국가 브랜드 제고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 각종 쟁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종합 포럼으로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제주도의 정체성 및 국제화 교육과 관련된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회의가 두차례 개최되어 향후 국제화 거점으로서의 제주도가 견지하여야 할 정체성 문제를 논의하였고, 제주의 발전을 견인할 영어교육 인프라에 관한 인식의 공감대를 구축하였다.

4차에 걸친 기존의 평화포럼과 달리 금번 포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처음으로 참가비 및 교통, 숙박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등록 참석자가 100여명을 상회하였으며, 이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과 같이 향후 제주 평화포럼이 국제사회에서 명성을 획득하여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대표적 포럼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제주평화연구원 한태규 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주평화포럼을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더욱 다양한 주제로, 더욱 많은 참가자가 참여하여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심도있고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표적 포럼으로 자리잡게 되는 비전을 피력하였다. 또한 한태규 원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모든 인사들에 감사를 표함으로 제5회 제주평화포럼이 성료되었다.



The 5th Jeju Peace Forum



Ⅲ 포럼 후속조치 계획

1. 제5회 제주평화포럼 국영문 서적 출판계획

1) 개요 및 중점사항

(1) 개요

- 가. 제주평화포럼의 의미와 성과를 참가자뿐만 아니라 관료, 전문가, 학자, 언론인 및 일반 대중은 물론 국내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나.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제주평화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료로써 축적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전파
- 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계된 지식(network knowledge)과 정책 교류(policy communication)의 장으로서의 제주평화포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2) 중점 사항

- 가. 체계적인 자료 축적: 포럼의 준비, 시행,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영상, 음성, 논문, 기사 등 모든 형태의 자료들을 (1) 체계적으로 정리함은 물론 (2)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축적
- 나. 효과적인 자료 발간: 학자, 관료, 전문가, 언론인, 학생 및 기타 일반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반영하고 영상물, 서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용자 우선(user friendly)의 다양한 결과물 활용을 통해 제주평화포럼을 다양한 계층에게 홍보하고 자료를 발송
- 다. 전문적인 성과 활용: 제5회 제주평화포럼은 특히 역사, 경제, 제주, 안보, 국가브랜드 등 전문적인 세부 주제영역별로 동시세션이 개최됨으로써 이러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성과가 다양한 관련 영역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고려
- 라. 다양성의 적극 반영: 회의 형식에 있어서도 전체회의, 분과회의로 구분되고 발표문의 형식도 2~3페이지의 기초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15~20분의 학술적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다양한 회의형식의 특성을 감안 효과적인 지식 효과적 지식과 성과 전단체계 구성

2) 출판계획 및 일정

(1) 국/영문서적 발간 (2009년 12월말 이전)

- 가. 발간원칙: 의사결정된 패널의 원고 포함하여 1권으로 발간
- 나. 원고분량: A4 용지 300매 내외(예상)
- 다. 발간부수: 각 1,000권 (총 2,000권)
- 라. 배포: 국내외 포럼참석자, 국내외 주요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등
- 마. 소요예산



The 5th Jeju Peace Forum

제5회 제주평화포럼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구 분	세부내역	비 용	비 고
인건비	기획/진행/교정(1차)	2,400,000	60만×4개월
교정비	영문 녹취 및 교정	8,000,000	페이지당 1.2만원
	국문 교정(2차, 3차)	1,500,000	페이지당 5천원
번역비	국문 → 영문 번역	8,000,000	페이지당 2만원
행정비	사무용품/행정/회의	300,000	
배포비	국내배포	1,200,000	400부×3,000원
	국외배포	1,800,000	300부×6,000원
출판비	국영문 각 1,000부	20,000,000	총 2,000권(V.A.T 포함)
예비비	기타 예비비	18,000,000	비용 증가대비
합 계		43,200,000	

■ 국문교정 별도 비용은 1차 원고 교정 이후 2차, 3차, 전문 교정업무 인건비

3) 국문서적 목차(案)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

발간사: 김태환 제주도지사

머리말: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장

제1부 상생과 공영을 위한 공동 비전

제 1 장 주요 인사 연설

제 2 장 브레튼우즈체제, G20과 세계통화금융 구조의 미래

제 3 장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비전과 전망

제 4 장 한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과 휴먼 뉴딜

제2부 역사

제 6 장 기억, 갈등과 역사의 정치

제 7 장 동북아의 정체성 위기와 국가간 문화적 갈등

제3부 경제

제 8 장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자동차 산업

제 9 장 세계무역과 신보호주의

제10장 동아시아의 금융시장 발전과 제주국제금융센터

제4부 안보

제11장 제주프로세스와 동아시아 다지안보협력

제12장 동아시아 인간 안보

제13장 핵, 계승정치, 그리고 북한의 미래

제5부 국가브랜드

제14장 국제적 맥락 속의 국가브랜드

제15장 국제협력 분야의 한국 국가브랜드

제16장 IT 경제분야의 한국 국가브랜드

2. 세미나 및 국제회의 추진 계획**1) JPI-EAI 동아시아 평화 컨퍼런스**

일시: 2009년9월 11일(금)

장소: PJ호텔카라디움홀

주제: 동아시아의 평화와안보

목적: 동아시아 각나라의국가안보를 굳건히하는 한 편, 상호 신뢰를 형성하면서 역내 평화를 유지하고 공고히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동아시아 평화와관련한 담론의지평을 넓히고자 함

2) JPI-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일시: 2009년9월 25일(금)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

목적: 남북한관계에 중점을 두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의 평화로운 질서와 지속 가능한발전 방안을 모색함. 이를 통해서 제주평화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역내 다지협력의 대안을 모색 하는계기로 활용함

3) JPI-외교통상부 소프트 파워 외교전략 세미나

일시: 2009년 10월 16일

장소: 제주하얏트 호텔

주제: 소프트파워와 외교전략

목적: 한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전략(2009년 중장기 외교전략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내 다지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방안을 모색함

4) JPI-FNF 공동학술회의

일시: 2009년 10월 28일-30일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동아시아 다지협력

목적: 동아시아에서 다지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역사갈등문제에 대해서 갈등의 당사자인 한국, 중국,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논의의 장과 2차 세계대전 전후시기 까지 발생했던 유럽의역사적 갈등과이 의 해소에 대한 경험을논의하는 장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다지주의를 위한 실천적 노력의방안을 모색할 기회로 활용함



5)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 기념국제학술회의

일시: 2009년 11월 6일

장소: 제주라마다호텔

주제: 독일 통일의 경험을 통해 본 남북관계의 시사점

목적: 베를린장벽의 붕괴 20주년 독일이 통일을 19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 독일의 통일 경험은 분단상태의 우리에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20년의 기간 동안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직면하고 극복했던,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돌아봄으로써 향후 대북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함. 이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협력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6) 동북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국내학술회의

일시: 11월 13일(잠정)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동북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목적: 동북아시아 다자협력을 위해 안보와 경제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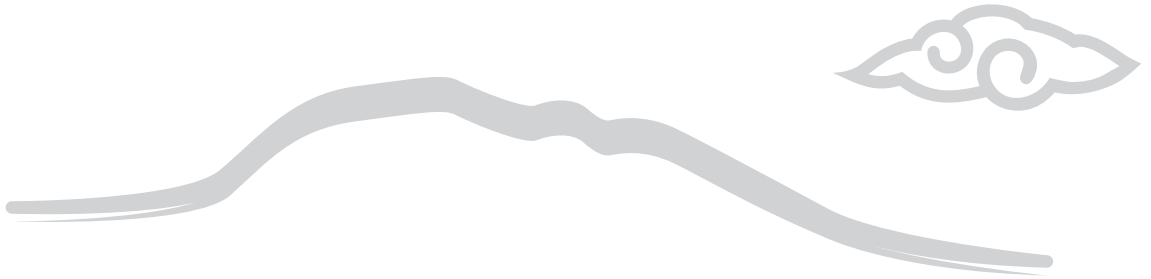
7) 동북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국제학술회의

일시: 2009년 11월 말

장소: 싱가포르(잠정)

주제: Multilateral Cooperation in East Asia

목적: 전세계적 차원의 다자주의 협력의 발전의 양상을 볼 때, 동아시아의 지역협의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점에 와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정부는 올해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주최하며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의 주요연구기관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동아시아 다자지역협의체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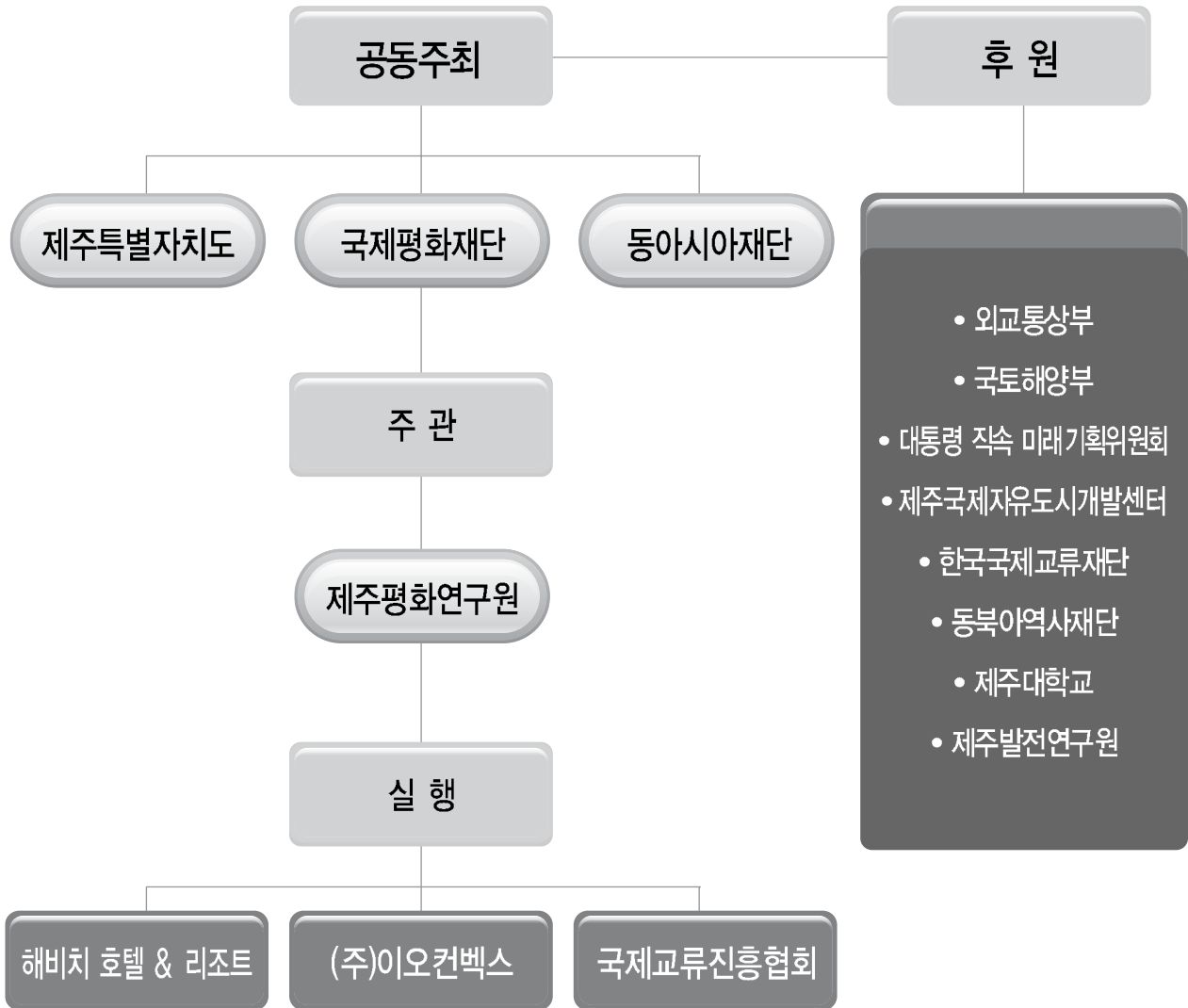
The 5th Jeju Peace Forum







별첨

1. 조직위원회 조직도



2. 행사일정표

시간	8월 11일 (화)		
08:00-09:00			
09:00-09:20			
09:20-09:40			
09:40-10:00			
10:00-10:20			
10:20-10:40			
10:40-11:00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2:20			
12:20-12:40			
12:40-13:00			
13:00-13:20			
13:20-13:40			
13:40-14:00	동시회의 I 경제 1 (13:40 - 16:40) 크리스탈 B * 통역없이 영어로만 진행	동시회의 I 역사 1 (14:20 - 16:40) 크리스탈 C 	동시회의 I 제주 1 (14:20 - 16:40) 크리스탈 A * 통역없이 한국어로만 진행
14:00-14:20			
14:20-14:40			
14:40-15:00			
15:00-15:20			
15:20-15:40			
15:40-16:00			
16:00-16:20			
16:20-16:40			
16:40-17:00	커피브레이크 (16:40 - 17:00)		
17:00-17:20	특별 전체회의 “브레튼우즈체제, G20, 세계 통화금융 구조의 미래” (17:00 - 18:20) 크리스탈 D 		
17:20-17:40			
17:40-18:00			
18:00-18:20			
18:20-18:40	휴식 (18:20 - 18:40)		
18:40-19:00			
19:00-19:20	환영만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주최 (18:40 - 20:00) 다이아몬드 홀		
19:20-19:40			
19:40-20:00			
20:00-20:20	휴식 (20:00 - 20:30)		
20:20-20:40			
20:40-21:00	Global Asia Night of “Wine, Fun & Ideas” (20:30 - 21:30) 사파이어 홀		
21:00-21:20			
21:20-21:40			



한·영 동시통역 한·일 동시통역

8월 12일 (수)				8월 13일 (목)			
등록 (08 : 30 - 09 : 50)				등록 (08 : 00 - 09 : 00)			
				기조연설 반기문 UN사무총장 (09 : 00 - 09 : 30) 그랜드볼룸			
개회식 (09 : 50 - 10 : 00) 그랜드볼룸				커피 브레이크 (09 : 30 - 10 : 00)			
기조연설 한승수 국무총리 (10 : 00 - 10 : 20) 그랜드볼룸				전체회의 IV “세계금융위기, 위험관리, 기업경영: 아시아 태평양의 시각” (10 : 00 - 11 : 20) 그랜드볼룸			
커피 브레이크 (10 : 20 - 11 : 00)				전체회의 V (외교관 원탁회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촉진: 선행적 외교의 역할” (11 : 30 - 12 : 30) 그랜드볼룸			
전체회의 I (세계지도자 세션) “상생과 공영의 21세기를 향하여” (11 : 00 - 12 : 20) 그랜드볼룸				자유 오찬 (12 : 40 - 14 : 00) 다이아몬드 홀			
오찬 외교통상부 장관 주최 (12 : 30 - 13 : 50) 다이아몬드 홀				전체회의 VI (국가 브랜드 회의) “국제적 맥락 속의 국가브랜드: 추이, 현안 및 실행 전략” (14 : 10 - 15 : 30) 그랜드볼룸			
전체회의 II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비전과 전망” (14 : 00 - 15 : 20) 그랜드볼룸				휴식 (15 : 20 - 15 : 30)			
휴식 (15 : 20 - 15 : 30)				휴식 (15 : 30 - 15 : 40)			
전체회의 III “한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과 휴먼뉴딜” (15 : 30 - 16 : 50) 그랜드볼룸				동시회의 III 국가브랜드 1 (15 : 40 - 17 : 10) 크리스탈 C	동시회의 III 경제 3 (15 : 40 - 17 : 10) 크리스탈 B	동시회의 III 안보 2 (15 : 40 - 17 : 10) 크리스탈 D	동시회의 III 제주 2 (15 : 40 - 17 : 10) 크리스탈 A
커피 브레이크 (16 : 50 - 17 : 10)				커피 브레이크 (17 : 10 - 17 : 20)			
동시회의 II 내외신 기자 원탁회의 7 : 10 - 18 : 40 크리스탈 A	동시회의 II 안보 1 (17 : 10 - 18 : 40) 크리스탈 D	동시회의 II 역사 2 (17 : 10 - 18 : 40) 크리스탈 C	동시회의 II 경제 2 (17 : 10 - 18 : 40) 크리스탈 B	동시회의 IV 안보 3 (17 : 20 - 18 : 50) 크리스탈 D	동시회의 IV 국가브랜드 2 (17 : 20 - 18 : 50) 크리스탈 C	동시회의 IV 경제 4 (17 : 20 - 18 : 50) 크리스탈 B	
휴식 (18 : 40 - 19 : 00)				폐회식 (19 : 00 - 19 : 10) 그랜드볼룸			
만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 (19 : 00 - 20 : 40) 그랜드볼룸				폐회만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19 : 10 - 20 : 30) 그랜드볼룸			



크리스탈D

17:00 – 18:20

특별 전체 회의:

“브레튼우즈체제, G20, 세계통화금융 구조의 미래”

사회: 사공일(대통령 직속 G20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한국무역협회 회장)

발표:

- David EDWARDS(SC 제일은행 회장)
- KAWAI Masahiro(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소장)
- LI Daokui(중국 칭화대학교 경제학 교수)
- Hon. TAMURA Kotaro(일본 참의원 의원)
- Scott KALB(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 본부장)

18:20 – 18:40

휴식

다이아몬드홀

18:40 – 20:00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주최 환영만찬

만찬사: 김세원(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축사: 원희룡(한나라당 국회의원)

20:00 – 20:30

휴식

사파이어홀

20:30 – 21:30

Global Asia Night of “Wine, Fun & Ideas”

주최: 공로명(Global Asia 발행인/전 외교통상부 장관)

2009년 8월 12일(수)

08:30 - 09:50 등록

그랜드볼룸

09:50 - 10:00 개회식

개회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영사: 김세원(국제평화재단 이사장)

그랜드볼룸

10:00 - 10:20 기조연설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한승수(국무총리)

10:20 - 11:00 커피 브레이크

그랜드볼룸

11:00 - 12:20 전체회의I: 세계지도자 세션

“상생과 공영의 21세기를 향하여”

사회: 박진(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연사:

- 이홍구(전 국무총리/서울국제포럼 이사장)
- HE John HOWARD(전 호주 수상)

다이아몬드홀

12:30 - 13:50 외교통상부 장관 주최 오찬

오찬사: 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

그랜드볼룸

14:00 - 15:20 전체회의II: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비전과 전망”

사회: 공로명(전 외교통상부 장관/세종재단 이사장)

연사:

- 김학수(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
- 홍순영(외교협회 회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 Amb. Evgeny AFANASEV(태국주재 러시아대사)
- Charles MORRISON(미국 동서문화센터 소장)
- WANG Yingfan(중국 전 외교부부장)

15:20 - 15:30 휴식



그랜드볼룸

- 15:30 – 16:50 전체회의III:
 “한국의미래: 신성장동력과 휴먼뉴딜”
 사회: 곽승준(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발표:
 (1) “신성장동력”
 • 임채민(지식경제부 1차관)
 • Ulf NEHRBASS(한국 파스퇴르연구소 소장)
 (2) “휴먼 뉴딜”
 • 현오석(KDI 원장)
 • Richard FREEMAN(하버드 대학교 교수)
- 16:50 – 17:10 커피 브레이크

크리스탈 A

- 17:10 – 18:40 동시회의III:
 <내외신기자 원탁회의> “한반도와 지역문제 보도하기: 언론인들의 견해”
 사회: 홍정욱(국회의원/전 헤럴드 미디어 대표이사)
 발표:
 • 이우탁(연합뉴스 정치부 기자)
 • 임연숙(Channel NewsAsia 한국지부장)
 • HAKODA Tetsuya(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 Jean LEE(AP통신 서울지국장)
 • Jonathan THATCHER(로이터통신 서울지국장)

크리스탈 D

- 17:10 – 18:40 동시회의III:
 <안보 1> “제주프로세스와 동아시아다자안보협력”
 사회: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 오준(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 Peter HAYES(노틸러스 연구소 소장)
 • Timo KIVIMAKI(덴마크 북유럽 아시아학 연구소 연구위원)
 • PAN Zhenqiang(국방대학교 교수/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
 • Amb. TANINO Sakutarō(전 주중 일본대사)

크리스탈 C

- 17:10 - 18:40 동시회의II:
 <역사 2> “동북아의 정체성 위기와 국가간문화적 갈등:
 100년전 동아시아의 역사·영토 문제의 재조명”
- 사회: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발표:
- 강용범(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교수)
 -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KUROKI Morifumi(후쿠오카 국제대학교 교수)
- 토론:
- 배성준(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Donald BAKER(브리티시 콜럼비아대학교 교수)
 - Alexander PETROV(러시아 과학원 연구위원)

크리스탈 B

- 17:10 - 18:40 동시회의II:
 <경제 2> “세계무역과 신보호주의: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
- 사회: 안충영(중앙대학교 석좌교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 ombudsman)
- 발표:
- 안호영(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Vinod AGGARWAL(UC 버클리대학교 교수)
 - Li Wei(중국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연구위원)
 - URATA Shujiro(와세다대학교 교수)
- 18:40 - 19:00 휴식

그랜드볼룸

- 19:00 - 20:4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 만찬
- 만찬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축사:
- 김용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HE John HOWARD(전 호주 수상)



2009년 8월 13일(목)

08:00 - 09:00 등록

그랜드볼룸

09:00 - 09:30 기조연설

반기문(UN 사무총장)

09:30 - 10:00 커피 브레이크

그랜드볼룸

10:00 - 11:20 전체회의IV:

“세계금융위기, 위험관리, 기업경영: 아시아태평양의 시각”

사회: William OVERHOLT(하버드 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위원)

발표:

- 강정원(국민은행 회장)
- 현재현(동양그룹 회장)
- Oleg DERIPASKA(베이지 엘리트그룹 회장)
- Spencer KIM(CBOL Corporation 회장)
- WATANABE Yoshihiro(국제금융문제연구소 소장)

그랜드볼룸

11:30 - 12:30 전체회의V: 외교관 원탁회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촉진: 선행적 외교의 역할”

사회: Amb. Donald GREGG(전 주한 미국대사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발표:

- 신각수(외교통상부 차관)
- Amb. Gleb A. IVASHENTSOV(주한 러시아대사)
- Amb. Brian McDONALD(주한 EU대표부 대사)
- Amb. Kathleen STEPHENS(주한 미국대사)

다이아몬드홀

12:40 - 14:00 자유 오찬

그랜드볼룸

14:10 - 15:30 전체회의VI: 국가브랜드 회의

“국제적 맥락 속의 국가브랜드: 추이, 현안 및 실행전략”

사회: 임성준(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기조연설

“한국의 국가브랜드 전략”

- 어윤대(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발표:

- (1)“국가브랜드: 국제적 추이”
 - Simon ANHOLT(정책자문/안홀트 국가브랜드 지수 개발자)
 - (2)“한국의 국가브랜드 지수”
 - 이동훈(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 (3)“국제적 맥락 속의 국가브랜드: 유럽이 보는 한국 - 프랑스의 시각”
 - Bernard SPITZ(BSConseil 창업자 겸 CEO)
- 토론:
- 김유경(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한국광고학회 회장)
 -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
 - Nicholas CULL(미국 남가주대학교 교수)

15:30 - 15:40 휴식

크리스탈 C

- 15:40 - 17:10 동시회의III:
 <국가브랜드 1> “국제협력 분야의 한국 국가브랜드”
- 사회: 오준(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 발표:
- (1)“국가브랜드와 경쟁적 아이덴티티: 한국에 주는 교훈”
 - Simon ANHOLT(정책자문/안홀트 국가브랜드 지수 개발자)
 - (2)“국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한국의 역할”
 - 장시정(한국국제협력단 이사)
 - (3)“공공외교: 한국의 과제”
 - Nicholas CULL(미국 남가주대학교 교수)
 - (4)“국제협력 분야의 한국 국가브랜드”
 - 최정화(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이사장)
- 토론:
- 손열(연세대학교 교수)
 - 이윤(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

크리스탈 B

- 15:40 - 17:10 동시회의III:
 <경제 3> “지속가능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
- 사회: 조동성 교수(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
- (1)“기업의 지속경영”
 - Jordan SIEGEL(하버드대학교 교수)
 - (2)“공공기관의 지속경영”
 - 나도선(울산대학교 교수)
 - (3)“NGO의 지속경영”
 -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4)“대학의 지속경영”
 - 이근관(서울대학교 기획부실장)
 - (5)“언론기관의 지속경영”
 - 강효상(조선일보 경영기획실 실장)



크리스탈 D

- 15:40 – 17:10 동시회의III:
 <안보 2> “동아시아인간안보: 기회와 도전”
 사회: Stein TONNESSON(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소장)
 발표:
 (1) “동아시아 인간안보의 현주소”
 • John SWENSON-WRIGHT(캠브리지 대학교 교수)
 (2) “일본의 인간안보 외교구상”
 • AKAHA Tsuneo(몬트레이 국제연구소 교수)
 (3) “북한 인간안보의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모색”
 • John PARK(미국국제평화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 제성호(인권대사/중앙대 교수)
 • Boris KONDOCH(International Peacekeeping 편집인)

크리스탈 A

- 15:40 – 17:10 동시회의III:
 <제주 2> (타운홀 회의 II) “국제화시대에서의 한국의 교육: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연구”
 사회: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 Christopher BOGDEN(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프로젝트 매니저)
 토론:
 • 김인석(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모종린(연세대학교 교수)
 • 윤정일(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 황선준(스웨덴 교육청 정부재정국 국장)
 • John LINTON(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Thomas PENLAND(대전국제중학교 총감)

17:10 – 17:20 커피 브레이크

크리스탈 D

- 17:20 – 18:50 동시회의IV:
 <안보 3> “핵, 계승정치, 그리고 북한의 미래”
 사회: 유재건(LEE International 특허법률사무소 상임고문/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발표:
 • 남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 최강(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최종건(연세대학교 교수)
 • Walter KLITZ(나우만재단 서울사무소 소장)
 • OKONOGI Masao(게이오 대학교 교수)

크리스탈 C

- 17:20 - 18:50 동시회의IV:
 <국가브랜드 2> “IT 경제분야의 한국 국가브랜드”
- 사회: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
- (1) “국가브랜드의 이론과 현실: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
 - Keith DINNIE(템플대학교 일본캠퍼스 교수)
 - (2) “한국의 ‘보이지 않는’ 브랜드 구축”
 - 박상훈(Interbrand 사장)
 - (3) “브랜드 코리아의 경제적 함의적 과제”
 - 한충민(한양대학교 교수)
 - (4) “경제분야의 한국 국가브랜드”
 - 박태호(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 토론:
- 장대련(연세대학교 교수)

크리스탈 B

- 17:20 - 18:50 동시회의IV:
 <경제 4> “동아시아의 금융 시장발전과 제주국제금융센터”
- 사회: 양수길(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 발표:
- 박윤식(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 토론:
- 강철준(한국금융연수원 교수)
 - 오갑수(제일은행 부회장)
 - 이후명(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과장)
 - Tony MICHELL(Korea Associates Business Consultancy 대표)

그랜드볼룸

- 19:00 - 19:10 폐회식
- 폐회사: 한태규(제주평화포럼 집행위원장)

그랜드볼룸

- 19:10 - 20:3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폐회 만찬
- 만찬사: 변정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4. 국내외 주요 참가자 약력

1) 국내 참석자(가나다순)

강정원은 국민은행 행장이다. 2000년부터 2년간 서울은행 행장을 역임했고 도이체방크 서울사무소 대표를 역임했다. 다스마우스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터프츠대학교 플래처스쿨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했다.

공로명은 세종재단 이사장이며 GlobalAsia 발행인이다. 외교부장관(1994-1996)을 역임했으며 주일본대사, 초대 러시아 대사, 주 브라질대사 등을 역임했다. 한림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일포럼의 의장이다.

곽승준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1995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밴더빌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세원은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용덕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이다.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역사를 강의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태환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다. 2004년 보궐선거에서 민선 도지사로 선출되었고, 2006년 재선되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고 있다. 제주도청, 내무부근무 등을 거쳐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민선 제주시장을 2차례 역임하였다.

김학수는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이다. 유엔 사무차장과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을 역임했다(2000-2007). 남캐롤라이나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정인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며 GlobalAsia 편집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국학연구원장,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했고 미국국제정치학회(ISA)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직속 동북아시아위원회(2004-2006)로 일했다.

박원순은 변호사이자 한국에서 잘 알려진 사회활동가이다. 현재 희망제작소의 상임이사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다.

박윤식은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로 국제금융을 강의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강의하였으며 World Bank에서 10년간 수석연구원으로 일했다. 하버드대학교와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2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진은 16대, 17대, 18대 국회의 3선 국회의원이며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위원장이다.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에서 석사학위와 옥스포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공일은 한국무역협회 이사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경제정책 보좌관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재무부 장관(1987-88)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1983-87)등의 경력이 있다. UCL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안충영은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이며 KOTRA 옴부즈만이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APEC 경제위원회 위원장, 대통령경제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일했다.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학위 취득했다.

안호영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G-20 정상회담 및 G-8 회담 등에 대통령 정책보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 및 외교분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양수길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OECD 한국대사로 일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어윤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며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미시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원희룡은 한나라당 소속의 3선(16대-18대) 국회의원이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여 검사로 서울, 여주, 부산등에서 근무했다.

유명환은 한국의 외교통상부장관이다. 외교통상부 제1차관, 제2차관, 주 일대사, 주 필리핀대사, 주 이스라엘 대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헤이그사회연구원에서 수학했다.

유재건은 전 국회의원으로 열린우리당 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Lee International의 상임고문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워싱턴주립대학에서 사회학박사학위와,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JD 학위를 취득했다.

이흥구는 중앙일보 이사회 의장이며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이다. 국무총리, 통일부총리 등을 역임했으며 15대 국회의국회의원, 주미대사, 주영대사 등을 역임했다.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했다.

임성준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다. 주 캐나다대사, 주 필리핀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국가안보 및 외교수석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교와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정재호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로 중국연구소 소장, 국제문제연구소 중국지역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브라운대학교 석사(역사학), 미시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동성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경영대학 학장(2001-2003) 및 학술단체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태규는 제주평화연구원 원장이다. 주 방글라데시대사,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주 그리스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주 태국대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연수했다.

현오석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다. KAIST에서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재정경제부 차관, 경제부총리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World Bank에서 일했다.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현은 동양그룹 회장으로 전경련 부회장 및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APEC 경제지문위원회(ABAC) 한국 대표로 일했고, 2005년 APEC 경제지문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

홍정욱은 18대 국회 국회의원이다.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및 회장을 역임하고 동아ITV 대표이사 및 회장이다.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포드대학교에서 J.D.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2) 국외참석자(알파벳순)

비노드 아가르왈(AGGARWAL, Vinod)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버클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연구센터(BASC) 소장이다. 스탠포드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올레그 데르파스카(DERPASKA, Oleg V.)는 러시아의 유명한 갑부이다. BASIC ELEMENT사의 대표이사이며, 러시아 알루미늄 회사인 UC Rusal사의 이사회 임원이다. 1968년 코르크 오블라스트 드제르진스크에서 태어났다



리처드 프리먼(FREEMAN, Richard B.)은 하버드대학 경제학과의 허버트 애쉬먼(Herbert Ascherman) 석좌교수이며, 하버드법대 근로 및 생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도널드 그레그(GREGG, Donald)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주한 미국대사와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이사장을 역임했다. CIA에서 1951년부터 1982년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대통령 국가안보좌관을 역임했다.

존 윈스턴 하워드(HOWARD, John Winston)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25대 호주수상을 역임했다. 하워드 전 수상은 1974년부터 2007년까지 뉴사우스웨일즈베니롱(Bennelong) 지역의 연방하원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스펜서 김(KIM, Spencer H.)은 1987년 설립된 항공부품 회사인 CBOL사의 회장이다. 태평양시대연구원(PCI, Pacific Century Institut)의 공동 설립자이며 태평양국제정책위원회(PCIP, Pacific Council on International Policy)의 설립자다.

찰스 모리슨(MORRISON, Charles E.)은 1998년부터 하와이 동서센터(the East-West Center) 원장이다. 2005년부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의 국제의장을 맡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오코노기 마사오(OKONOGI, Masao)는 일본의 게이오대학교 법학부의 정치학 교수이며 같은 대학교의 한국학연구센터의 원장이다.

윌리엄 오버홀트(OVERHOLT, William H.)는 랜드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 소장이다. 미국 국방부, 국무부, 항공우주국 등의 중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초강국으로 가는 중국(The Rising China)”의 저서가 있다.

판 첸치안(PAN, Zhenqiang)은 예비역인민해방군 대령이며 중국국제연구재단(CFIS) 부회장이다. 중국개혁개방포럼(CRF)의 상임고문, 중앙금융경제대학 전략경영 연구소 소장이다. 칭화대학 등의 객원교수이다.

존 박(PARK, John)은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선임 연구원이며 동북아시아 프로그램과 한국 워킹그룹의 책임자이다. 캠브리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길버트 로즈만(ROZMAN, Gilbert)은 프린스턴대학교 사회학 교수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동아시아 및 한국 전문가이다.

버나드 스피츠(SPITZ, Bernard)는 BS 컨설팅사의 CEO이자 설립자이다. 프랑스에섹(ESSEC)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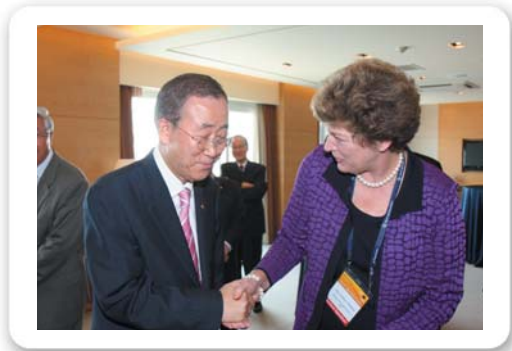
타니노 사쿠타로(TANINO, Sakutarō)는 전 주중일본대사다. 현재 토시바사의 이사회 임원이며, 후쿠다수상의 외교정책자문그룹의 멤버이다. 도쿄대학을 졸업했으며 와세다대학교의 방문교수로 6년간 강의했다.

스테인 토넨슨(TONNESSON, Stein)은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PRIO)의 소장이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베트남, 동남아시아, 남중국해의 전쟁과 혁명 등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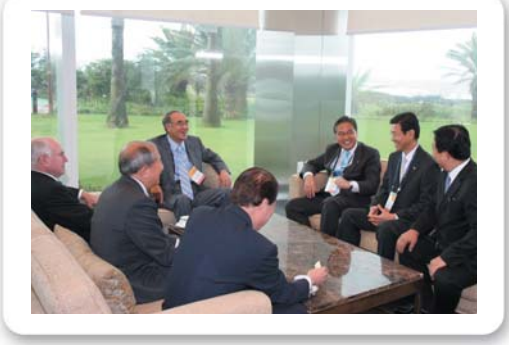
왕 인펑(WANG, Yingfan)은 전 중국 외교부 부장이다. 북경외국어대학 영어과를 졸업하고 영국, 가나, 필리핀 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주필리핀 대사(1988-1990), 아시아국장(1990-1994), 그리고 외교부장보(1994-1995)를 역임했다.

와타나베 요시히로(WATANABE, Yoshihiro)는 Mitsubishi UFJ Financial 그룹의 전무이며 2005년 이래 위기관리 책임자(risk management)이다.

5. 주요 행사장면











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TEL. 064-735-6500 / FAX. 064-735-6512
<http://www.jpi.or.kr>

주 최



주 관



후 원

